

제10회 강진청자박물관 학술세미나

고려 중기 청자제작의 시대적 고찰

| 2008. 8. 11(월) 13:00~16:00 강진청자박물관 시청각실 |



강진청자박물관

제10회 강진청자박물관 학술세미나

고려 중기 청자제작의 시대적 고찰

고려 중기 청자에 보이는 중국 도자의 영향—김현정(국립중앙박물관)
해저인양 청자로 본 고려도자의 제작과 유통—장남원(이화여자대학교)
고려 중기 청자 가마의 운영—구일희(국립대구박물관)

2008. 8. 11(월) 13:00~16:00

강진청자박물관 시청각실

고려 중기 청자에 보이는 중국 도자의 영향

김현정(국립중앙박물관)

고려 중기 청자에 보이는 중국 도자의 영향

김현정(국립중앙박물관)

■ 목 차 ■

1. 머리말
2. 중국인들이 본 고려 청자와 중국 도자의 관계
3. 고려 중기 청자에 보이는 중국 도자의 영향
4. 맺음말-고려 중기 청자에 보이는 중국 도자의 특성

1. 머리말

이른바 고려 중기 청자는 강진 가마터에서 보이는 일정한 유형의 청자를 생산한 시기의 청자들을 뜻하며, 이 청자들은 蓮瓣紋, 鸚鵡紋, 壓出陽刻紋 청자 鉢類와 折腰 접시, 筒形 盞, 팽이형잔 등으로 이전의 초기 청자와는 구별되는 청자들이다. 이 청자들은 용운리 10호-II층 출토되며, 새로운 기종과 문양은 강진과 부안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공유되고 확산되었다. 시기적으로는 11세기말에서 13세기 전반에 해당한다.¹⁾

본고는 이렇게 고려 청자에서 새롭게 나타난 기종과 문양에 나타난 중국 도자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제껏 고려 청자에 보이는 중국 도자의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²⁾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다각도로 고려 청자에 미친 중국 도자의

1) 장남원, 「고려중기 청자 연구」, 혜안, 2006.

2) 任眞娥, 「高麗遺蹟 出土 宋代磁器 研究」,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考古學專攻 碩士學位論文, 2003
朴芝英, 「高麗 陽刻青磁 研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文化財協同過程 美術史學專攻 碩士學位論文, 2005.

영향에 대해 연구되었다. 북송, 남송, 요와 금대의 월요, 여요, 요주요, 정요, 자주요, 경덕진요에 이르기까지 중국 여러 요장의 도자에서 나타나는 특성들이 고려 청자에서 보여진다.

첫 장에서는 중국인들의 고려 청자와 중국 도자의 영향에 대한 인식을 사료를 통해 살펴 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중국인들이 중국 도자가 고려 청자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다고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중국 도자와 고려 청자를 어떻게 구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될 것이다. 둘째 장에서는 고려 중기 청자의 새로운 기종과 문양을 살펴보고, 고려 중기 청자에 보이는 중국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 도자 요계의 영향 관계와 흐름을 잘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 고려 중기 청자가 중국 도자의 영향을 받았는지 분명히 알기가 어렵다. 그러나 고려 중기 청자에 미친 중국의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중국 도자가 고려에 미친 영향이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 중국인들이 본 고려 청자와 중국 도자의 관계

중국은 당대 육우의 『茶經』 이래로 도자기에 대한 글이 많이 남아 있다. 전문적인 글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 가운데에는 고려 청자와 중국 도자의 관계에 중국인들의 생각을 찾아볼 수 있는 글들이 남아 있다.³⁾

이러한 글은 중국인의 시각에서 그들의 눈에 익숙한 자기 나라 도자기와 고려 도자기의 차이를 쉽게 구분하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어떤 기법이나 문양에서 조금이라도 중국적 요소가 있다면, 중국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다는 점과 그 중국인이 중국의 모든 도자기에 정통하였는가 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고려인들의 시각으로 고려의 도자기와 중국의 도자기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기록이 없고, 부족하나마 중국인들의 기

任眞娥, 「高麗靑磁에 보이는 北宋-遼代 磁器의 影響」, 弘益大學校 大學院 美術史學科 韓國美術史專攻 碩士學位論文, 2005

鄭信玉, 「高麗 前半期 磁器에 나타난 中國 北方 陶磁의 影響」,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美術史學科 석사학위 논문, 2005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中國陶磁』, 예경, 2007.

金英媛, 「韓國과 中國의 陶磁交流, 10-19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中國陶磁』, 예경, 2007.

金英媛,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中國陶磁의 內容과 性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中國陶磁』, 예경, 2007.

3) 상대적으로 고려인들이 고려 청자에 대해 기록한 글들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단편적이거나 시문의 성격을 띠며, 중국도자에 대해 기록은 아쉽게도 찾아지지 않는다.

록에 의거하여 그 차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인이 본 고려 청자와 중국 자기에 관계에 대해 가장 잘 남아 있는 글은 역시 『宣和奉使高麗圖經』(이하 고려도경)이다. 이 책은 송나라 사신 서공이 1123년 고려를 방문하여 1개월 정도 머무르면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내용이다. 중국인 서공이 여러 문물과 제도 등 제대로 수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⁴⁾ 다음의 사료에서 고려 청자와 중국 도자기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 A. 근래에 (고려인들도) 자못 차 마시는 것을 좋아하여 더욱茶具를 만든다. 金花鳥盞 · 翡色小甌 · 銀爐 · 湯鼎은 모두 중국 제도를 본뜬 것이다(『宣和奉使高麗圖經』 32 器皿3 茶俎)

- B. 陶器의 빛깔이 푸른 것을 고려인들은 翡色이라고 하는데, 근래에 와서 制作이 정교하고 色澤이 더욱 좋아졌다. 酒尊의 모양은 참외와 같으며, 위에 작은 뚜껑이 있는데 연꽃에 오리가 얹으려 있는 형상이다. 또 능히 罍 · 櫛 · 缶 · 甌 · 花瓶 · 湯琖을 만드는데, 모두 定器制度를 본뜬 것이므로 생략하고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 酒尊은 다른 그릇과 달라서 특별히 기록한다 (『宣和奉使高麗圖經』 32 器皿3 陶尊)

- C. 사자 모양의 香爐도 역시 翡色이다. 위에는 쭈그리고 있는 짐승이 있고 아래에는 仰蓮花가 그것을 받치고 있다. 여러 그릇 가운데 오직 이 물건이 가장 정교하고 좋은 제품이다. 그 나머지는 越州의 古秘色이나 汝州新窯器와 대략 비슷하다 (『宣和奉使高麗圖經』 32 器皿3 陶爐)

위 사료에 따르면 서공에 눈에 비친 고려 청자와 중국 도자기와의 차이는 역시 첫번째로 翡色이다.⁵⁾ 그 다음 차이가 있다고 본 것은 보면 酒尊이다(B). 酒尊의 모양을 설명하고,

4) 서공은 중국에서 외국으로 파견된 사신들의 필수적 임무가 견문 보고서의 작성이라고 인식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인식에 따라 고려의 역사와 제도, 문물과 풍습 등을 ‘말을 달리하면서도 두루 묻고 생각’ 하였으며, 널리 수집하여 圖籍을 제작하였고, 중국에 돌아와 1년만인 1124년에 송 휘종에게 『고려도경』 40권을 바쳤다고 한다.(조동원, 「『선화봉사고려도경』 해제」, 『고려도경』, 황소자리, 2005, p20)

5) 잘 알려져 있듯이 송나라 태평노인도 고려 비색청자를 천하 제일로 손꼽았다. 監書內酒 · 瑞硯 · 洛陽花 · 建州茶 · 蜀錦 · 定磁 · 浙漆 · 吳紙 · 晉銅 · 西馬 · 東絹 · 契丹鞍 · 夏國劍 · 高麗翡色 · 興化軍子魚 · 福州荔

다른 그릇과 달라서 기록한다고 하였다. 이 酒尊이 정확히 어떤 기형인지 알기 어렵지만, 비색과 함께 가장 고려적인 기형으로 주목되었다.⁶⁾ 한편 사자모양 향로를 언급하였으나, 이것이 사자 향로의 비색을 강조하면서 가장 정교하고 좋은 제품임을 말하고 있다. 즉 이것은 중국 도자기와 고려 청자와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을 말한 것은 아니다.⁷⁾

한편 다른 것들은 중국 제도를 본떴다고 하거나(A), 定器制度를 본뜬 것(B)이라고 하거나, 越州의 古秘色이나 汝州新窯器와 대략 비슷하다(C)고 하였다. 기명은 여러 면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었음을 다시 말할 나위가 없다. 여기에서 본뜨거나 비슷하다고 한 것은 자기의 여러 면이었을 것이다. 즉 기종, 유약, 태토, 문양, 시문기법, 기술적 요소 등이다. 그 가운데 기술적 요소는 육안으로 식별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므로, 그가 대체로 본뜨거나 비슷하다고 본 것은 기종, 유색, 문양, 시문기법 등에 한정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사료 B의 ‘定器制度’ 제도이다. 내용에 따르면 罍·樸·缶·甌·湯琖을 만드는데 모두 定器制度를 본뜬 것이므로 생략하고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定器制度를 ‘정요의 그릇 만드는 법식’으로 보거나, ‘그릇을 만드는 일정한 법식’로 보고 있다. 고려도경에는 보통 ‘중국제도를 본떴다거나仿中國制度’, ‘중국과 비슷하다如中國之制’라는 표현이 주로 사용되었고, 이러한 표현은 기명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한 곳에서만 ‘定器’라고 쓰였다. 따라서 ‘중국제도를 모방하였다仿中國制度’ 혹은 ‘중국의 제도와 같다如中國之制’고 하지 않은 것은 ‘定器’라는 것이 지칭하는 일반적 의미가 아니라 고유가 의미인 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송대 태평노인의 천하제일로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정요의 자기定磁였다. 천하제일로 꼽은 것 가운데 도자기는 정요의 자기와 고려의 비색뿐이었다. 여기에서 정요의 자기는 백자였을 것이고, 정요가 백자를 대표한다면, 고려의 비색이 청자를 대표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만큼 정요의 자기는 유명하였고, 중국에서 자기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것 같다. 정요는 서공이 고려를 방문했을 당시인 1123년에 요업이 번성하고 있었다.

眼 溫州掛·臨江黃雀·江陰河豚·金山鹹鼓·簡寂觀苦筍·東華門把鮓京兵·福建出秀才·大江以南大夫·江西湖外長老·京師婦人是 모두 天下의 第一이다. 다른 곳에서 비록 그것을 본뜨고자 하나 결국 미치지 못한다(太平老人『袖中錦』「天下第一條」)

6) 이 酒尊을 매병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장남원, 앞의 책, 혜안, 2006, p 287)

7) 사자모양 향로는 요주요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전승창, 『靑磁 彫刻 裝飾 香爐 考察』, 『고려청자와 종교』, 강진청자자료박물관, 2002)

그렇다면 서공의 말한 ‘정기제도’ 를 본 뜬 것에는 유색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즉 기종, 문양, 시문방법 ‘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둘 때, 고려 도경의 정기제도를 본떴다고 한 罍·櫛·缶·甌·花瓶·湯琖가 정요에서 주로 제작된 기종들에 부합한다고 여겨진다. 즉 정요에서는 발, 세반, 반, 접시, 잔 등이 주로 제작되었고, 병은 정병이나 화병류가 제작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정기定器는 중국의 자기 대명사로서가 아니라 실제 정요 그릇일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⁸⁾

아울러 정요에서는 궁중의 관부나 건물, 지방관부 등과 관련된 명문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官’, ‘新官’, ‘尙食局’, ‘尙藥局’, ‘會稽’, ‘奉華’, ‘鳳華’ 등 15종류의 명문이 발견되었다. 정요는 관에서 사용하는 자기를 만들었다. 특히 ‘尙藥局’ 이라는 명문은 고려 청자와 정요가 영향 관계가 있음을 잘 보여준다.⁹⁾

한편 청대에 남포가 지은 『景德鎮陶錄』에 고려 도자와 중국 도자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기록이 있다. 이것이 후대의 기록이므로 그는 여러 기록을 취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D. 고려에서 만든 것이 언제 비롯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질이 얇고 유색이 마치 경덕진 자기와 같다. 분청이 있으니 용천자기와 흡사하다. 가늘게 무늬가 들어간 것은 정요 백자를 방불케 하고 그 위에 흰색의 꽃송이라도 있다면 저들 나라에서는 그 가치를 감히 매길 수 없다고 한다. 생김새는 월주의 비색요나 여요 등의 것과는 대체로 비슷하고 그 가운데 참외 모양 기물이나 매병, 사자장식향로 등은 사뭇 다르다.(『景德鎮陶錄』, 「高麗窯」)

사료 D에 따르면 여기에는 고려 청자의 ‘가늘게 무늬가 들어간 것은’ 정요 백자와 비슷하다고 하였다. 정요 자기가 고려 청자에 가장 크게 준 영향은 섬세한 무늬로 기록하고 있다. 이밖에 고려 청자가 질이 얇고 유색이 마치 경덕진 같다고 하였는데, 경덕진의 자기는 청백자였을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고려청자와 경덕진 청백자를 비교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현재로서는 갑자기 알기 어렵다.¹⁰⁾

8) 정요의 영향에 관해 주목할 글이 있어 관심이 된다.(박지영, 앞의 글, 2005)

9) 정요의 상약국명 백자는 북송말년의 생산품으로, 제작시기는 승녕 2년(1103)에서 정강 원년(1126)지간으로 보았다.(刘涛, 「“尙食局”, “尙药局” 铭定瓷 年代再认识」, 『宋遼金纪年瓷器』, 文物出版社, 2004.) 고려의 상약국은 목종(재위 997-1009년)에 설치된 이래로 1310년 충선왕 때 장의서로 이름을 바뀌어다가 봉의서로 고쳐졌다. 한독의약박물관과 중앙박물관 소장 상약국명 청자는 12세기의 청자합이다.

10) 아마도 유색의 투명도가 아닐까 하고 추측된다.

요컨대 서공이 『고려도경』을 저술할 당시인 1123년 무렵 고려 청자는 중국 자기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았다. 서공이 본 고려청자와 중국도자와의 관계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었던 기준은 기종, 유색, 문양, 시문기법 등이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유색인 비색에 있었으며, 고려 청자와 유사점을 보여준 중국의 도자는 월요, 여요, 정요의 도자였다. 청대의 기록이긴 하지만, 여기에 경덕진과 용천요의 도자도 포함되었다. 주로 월요, 여요, 용천요 등은 청자의 유색과 영향 관계가 있고, 정요는 기종과 문양에 따른 조형성과 영향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고려 중기 청자에 보이는 중국 도자의 영향

앞 장에서 『고려도경』을 통해 12세기 전반에 고려 청자와 중국 도자의 관계를 중국인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서공이 본 고려청자와 중국도자와의 관계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었던 기준은 기종, 유색, 문양, 시문기법 등이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는 유색인 비색에 있었으며, 고려 청자와 유사점을 보여준 중국의 도자는 월요, 여요, 정요의 도자였다. 후대의 기록이긴 하지만, 여기에 경덕진과 용천요의 도자도 포함되었다. 주로 월요, 여요, 용천요 등은 청자의 유색과, 정요는 기종과 문양에 따른 조형성과 영향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문헌 기록의 중국 도자의 영향은 구체적으로 고려 중기 청자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이 가운데 여요의 경우는 이제껏 한 편의 조각된 국내에서 출토된 바가 없다. 그럼에도 여요와 고려 청자와의 영향관계는 부인하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즉 꼭 국내에서 출토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 방법이 도자기의 실물 수입이 아닌, 인적 교류·도록이나 도적 등에 의한 다른 방법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국내에서 출토된 중국도자의 성격보다는, 고려 중기 청자의 대표적인 유형인 강진 운운리 10호-Ⅱ층에서 출토된 기종, 문양과 시문기법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영향관계를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매우 독자적 색으로 중국인이 판단한 ‘비색’을 포함한 유색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고자 한다.

고려 중기 청자는 강진 용운리 10호-Ⅱ층에서 蓮瓣紋, 鸚鵡紋, 壓出陽刻紋 청자 鉢類와 折腰 접시, 筒形盞, 팽이형잔 등 이전의 초기 청자와는 구별되는 일정한 유형의 청자

들이다. 시기적으로는 11세기말에서 13세기 전반에 해당한다.

연판문은 발과 통형잔에 음각과 양각기법으로 주로 나타난다. 연판문발은 강진 10호-Ⅱ층에서 출토되는 O형과 Q형의 발이다.¹¹⁾ O형은 낮은 굽과 지름 3cm이하의 내저원각이 있고, 둥그런 옆선에 약간 오므라든 구연을 가졌으며, 구연 안쪽 0.5cm 아래로 음각선을 돌렸다. Q형 발은 굽이 낮고 내면은 넓고 평평하며 옆선이 각지지 않게 둥글게 올라가서 직구를 이룬 발이다. O형과 Q형은 대부분 10호-Ⅱ층 나 유형으로, 내측면에는 음각으로 앵무문을 동반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통형잔 G형은 내경하는 낮은 다리굽이 달린 통형잔으로 음양각과 함께 촘촘히 골을 낸 연판문이 시문된 것이다.

연판문은 단순한 음각, 연잎 끝만 박지처리한 것, 양각한 것이 있으며, 수당대 이전 시기부터 거의 모든 요지에서 나타난다. 오대의 요주요(도1), 월요(도2), 여요(도3), 용천요(도4), 정요(도5), 경덕진(도6)에 이르기까지 애용되었다. 이와 함께 주로 동반되는 앵무문(도7)은 월주요 사롱구 앵무문과는 다르게 간략화되었다. Q형 다유형에서 나타나는 쌍선 연판문이 월요 사롱구 도편에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 연판문발의 영향은 월주요에서 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Q형 다 유형 내면에 압출양각으로 교룡문(도8)을 시문한 것이 1점 있다. 교룡문은 기묘한 도룡농처럼 생긴 뿔 없는 용으로 들창코에 살찐 목과 팔다리를 가졌으며, 간간이 두 갈래로 갈라진 꼬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교룡은 정요에서 사용되었던 문양이다.¹²⁾뿐만 아니라 정요에서는 북송 후기 11세기 후반에서 12세기 전반의 시기가 되면 도범을 사용하여 압출양각기법을 사용하였다.¹³⁾ 이 압출양각 기법은 정요의 전성 시기는 북송후기부터 금대에 이르는 시기까지 계속되었다. 이러한 정요의 압출양각기법은 이후에 언급할 요주요의 압출양각기법에 이어 강진 용운리 10호 Ⅱ층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북송만기(1086-1127) 정요의 압출양각기법 사용시 접시 주연을

11) 기종별 형식의 명칭은 용운리 보고서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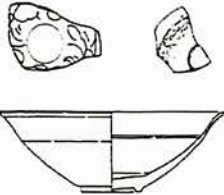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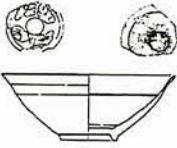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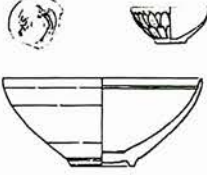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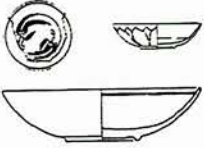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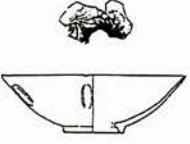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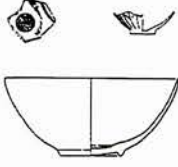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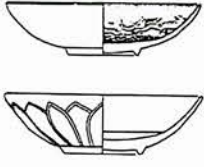
12) 스메들리는 삼조룡이 교룡으로 교체된 시기를 12세기 말쯤으로 보았다.(마가렛 스메들리, 『중국도자사』, 열화당, 1998, p139) 그러나 삼화동 고분 출토 잔탁의 전에 교룡이 시문되어 있으며, 공반 출토된 백자양각연화문잔이 북송만기의 정요백자인 점 등으로 삼화동 고분의 시기를 12세기 중반경으로 보고 있다.(박지영, 앞의 글, 2005) 따라서 정요에서의 교룡은 12세기 중반 이전에 교체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삼화동 고분에서도 용운리 10호-Ⅱ층의 것과 매우 비슷한 용문정형향로와 연판문청자발이 출토되었다.

13) 정요는 하북성 曲陽 澗磁村과 東西 燕山村에 자리하고 있다. 당말 오대에 요업이 시작되어 송대와 금대, 원대에 이르는 동안 牙白色을 띠는 白磁를 생산되었다. 정요의 장식기법으로는 劃花, 刻花, 압출양각(印花)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도록, 2007, p102)

뇌문대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후 금대에는 점차 이 뇌문대가 애용되었고, 남송의 경덕진 등에서도 간략한 형태로 바뀌어 나타난다. 물론 이 뇌문대는 고청동기에서 변안하여 도자기에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고려에서는 뇌문대를 잔의 구연이나 매병 하단 등에 음각, 상감 등으로는 사용하였지만, 압출양각기법을 사용한 접시나 발의 주연은 뇌문대로 장식하기 보다는 주로 한 줄의 음각으로 마무리하였다. 즉 문양을 빌려오지만 적용하는 부분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

[표 1] 용운리 10-Ⅱ층의鉢類

	L	O	Q
Ⅱ가			
Ⅱ나			
Ⅱ다			

이러한 예는 북송 정요에서 각화로 시문한 모란 연화 절지문을 차용해 오는데도 그러하다. 고려에서는 모란 연화 절지문의 디자인은 그대로 차용하면서도 각화기법이 아닌 압출양각으로 장식하고, 마찬가지로 그 주연은 음각으로 마무리하였다.¹⁴⁾

고려 중기 청자를 대표하는 기법 가운데 하나가 압출양각기법이다.¹⁵⁾ 압출양각 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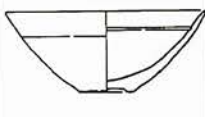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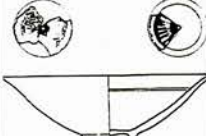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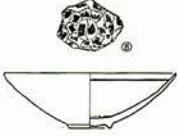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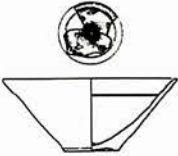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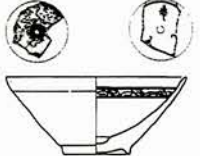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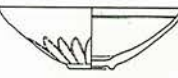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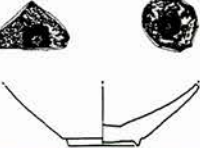
14) 박지영, 앞의 글, 2005, pp

은 도범으로 그릇이 마르기 전에 내면 전체를 찍었다가 떼어내어 문양을 양각으로 나타내는 기법이다. 압출양각으로 시문한 접시가 용운리 10호 요지 출토 문양의 절반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기법은 중국의 북방 지역 여러 요장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기법으로, 특히 북송대 요주요에서 가장 발달하였고, 대체로 북송 중기(1023-1085)이후부터 북송 만기(1086-1127)에 이르는 시기에 본격적으로 유행하였다고 하였다.¹⁶⁾

이 기법은 이외에 여러 곳으로 전파되어 요주요계를 이루며, 여요계인 청량사요지에서도 요주요 타입의 제품이 발견되고, 정요와 자주요에서도 북송대를 기점으로 압출양각 제품의 생산이 증가한다고 한다. 아울러 남장 월요 사룽구 요지의 최하층인 남송 초기까지도 압출양각 기법을 사용한 예가 거의 보이지 않아서 고려에서 유행한 압출양각청자의 기종 및 시문기법이 북방 요주요계의 연원을 두고 있다고 보았다.¹⁷⁾

용운리 10호 - II층 가 유형의 C형 완류의 국당초문 압출양각완을 보면 용운리 10호 - II층 이른 시기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요주요의 국당초문(도9)과 같은 문양은 사라지고, 점차 다른 요장의 문양을 압출양각을 통해 시문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표 2] 용운리 10-II층의 碗類

	C	E	F-1	G-2	G-3
II 가					
II 나					
II 다					

15) 장남원, 「高麗 中期 壓出陽刻 靑瓷의 性格」, 『美術史學研究』 242-243, 2004., 전고이므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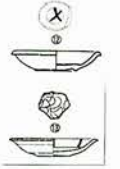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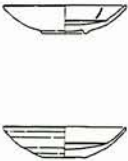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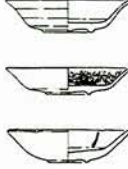



16) 장남원, 앞의 책, 2006, p168

17) 장남원, 앞의 책, 2006, p170

용운리 10호 -Ⅱ층 나 유형 E형 완의 문양은 요주요의 청자각화국판문(도10)이나 정요의 백자각화국판문(도11)을 압출양각기법으로 시문한 것이다. 아울러 용운리 10호-Ⅱ층 나, 다 유형의 G형 청자운학문완은 북송이든 요의 영향이든 간에 좀더 고려화 된 문양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앞서 언급했듯이 용운리 10호 -Ⅱ층 이른 시기 기종, 문양, 기법이 요주요의 전형적인 양식을 반영하였지만, 점차 압출양각의 기법만 남고 문양과 기종은 다른 요장의 것이나 고려적인 것으로 대체되어갔다고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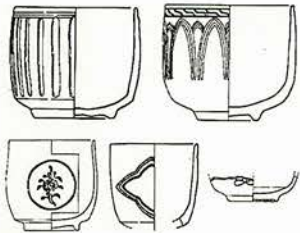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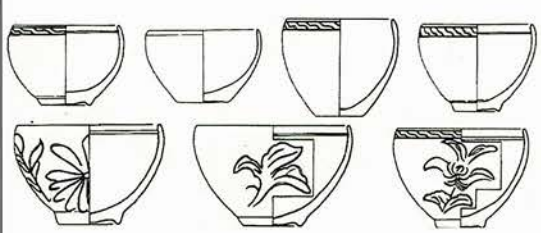
이렇게 압출양각기법이 급속히 확대된 것은 도범의 사용에 그 이유가 있다. 즉 일정한 크기와 문양의 양질의 청자를 생산해 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압출양각기법의 확대와 함께 도범을 사용하기 편하도록 구연이 벌어지고 누르기 편한 절요접시 등의 기형이 선호되었다.

[표 3] 용운리 10-Ⅱ층의 접시類

	H-1	H-2	T	U-5	V	W
Ⅱ가						
Ⅱ나						
Ⅱ다						

용운리 10호 -Ⅱ층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잔은 통형잔과 팽이형잔이다. (도12,13)

[표 4] 용운리 10-Ⅱ층의 잔類

	G-1	G-3
Ⅱ 가		
Ⅱ 나		
Ⅱ 다		

4. 맺음말-고려 중기 청자에 보이는 중국 도자의 특성

강진 용운리 10호 -Ⅱ층에서는 새로운 기종에 여러 기법으로 다양한 문양을 시문하였다. 중국인이 본 고려 중기의 청자와 중국 도자기와의 관계에서 살펴 본 수 있는 바와 같이 중국의 여러 요장의 영향이 강진 용운리 10호-Ⅱ층에 실제 나타났다.

중국도자에서 나타난 다양한 변화가 아주 큰 시기적 차이 없이 고려 중기 청자에도 나타났다. 다양한 여러 경향에 매우 민감하며, 여러 요장의 특징이 혼재되어 강진 용운리 10호-Ⅱ층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는 앵무문과 같이 중국 오대 등에 유행했던 문양이 고려에서 재유행하는 복고적 경향도 같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아마도 중국 내부의 송, 요, 금의 혼란한 정치적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쟁 등으로 오히려 도자기문화의 전파가 늦어질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오히려 전쟁과 정치적 혼란에 따라 많은 중국의 장인들이 고려로 이주해 왔고, 고려는 이것을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도자기와 관련된 중국 요장의 영향이 빠른 속도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강진이 자기소 체제로 유지되었기 때문이라고 믿어진다. 자기소 체제에서 국가나 관청에 공납할 자기는 많은 부분 국가와 관청의 지시와 요청에 따라 제작되었을 것이다. 중국의

상인들과의 교류도 있었겠지만, 다양한 요장의 특징을 중국과 별다른 시간차 없이 수입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과 문화교류를 주도하였던 국가만이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고려의 귀족들은 송, 요, 금의 대외적인 문화교류에서 얻어진 문화를 그들의 취향에 맞춰 자기소에 제작해 줄 것을 요청했을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고려 자기는 중국이나 해외로 수출되기 보다는 국내의 내수용으로 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근래 태안 해저에서 출토된 목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개경으로 보내진 청자의 취향은 개경의 소비자들인 귀족의 기호에 맞추어졌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방증하는 또다른 근거는 『고려도경』에 따르면 ‘모든 토산물은 관부로 들어가므로, 상인들은 멀리 움직이지 않는다’는 기록이 있다.¹⁸⁾ 즉 자기소는 고려 국가와 관청의 산업으로 주도되었다고 여겨진다.

한편 문헌 기록에는 월요, 여요, 정요, 경덕진, 용천요 등 요장의 영향이 기록되어 있다. 위에서 일일이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 요장들의 영향은 고려 자기에서 그 영향관계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실제 영향을 크게 미쳤던 요주요는 그 기록에서 빠져 있다. 이러한 사실을 요주요가 월요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일종의 월요계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요주요가 문헌기록에서 언급되지 않는 이유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싶다. 요주요는 공적인 국가의 사행 등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인 등 민간적 차원의 방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싶지만 갑자기 알 수 없다. 도범이 전파되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다른 가능성은 압출양각기법의 고려 전파에 있어서 요주요 뿐만이 아니라 정요의 비중이나 전파의 루트가 달랐거나 하는 것 때문에 요주요에 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이 아닐까. 분명 중국 요계, 요장간의 관계와 흐름의 면모가 분명히 파악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한편 고려 청자는 중국 도자기의 영향에 있었고 여러 요장의 영향을 받았으나, 항상 동일한 기법으로 문양을 시문한 것이 아니라, 점차 여러 문양과 기법을 혼용하며 다양한 제작기술을 소화해 내었다. 그럼에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음각과 특별히 일정한 질을 유지할 수 있으며, 다량 제작할 수 있는 제작기술인 압출양각기법을 사용하여 중국과는 다른 분위기를 빚어내었다.

18) 『고려도경』 19 民庶. 工技



그림 1
오대 요주요



그림 2 -1
월요 사롱구 요지



그림 2-1
복송대 월요



그림 3
여요



그림 4 복송 용천요



그림 5 복송 정요



그림 6 복송 경덕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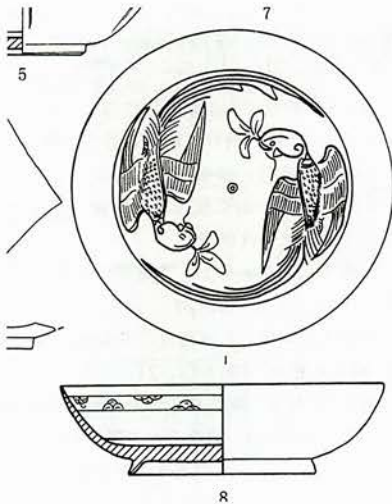


그림 7



그림 8 금대 정요 교룡문



그림 9-1 북송 요주요 청자각화국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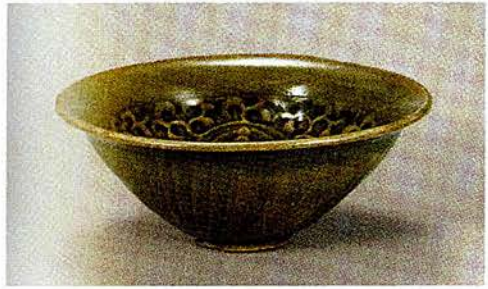


그림 9-2



그림 10 북송 요주요 청자각화국판문



그림 11 북송 정요 백자각화국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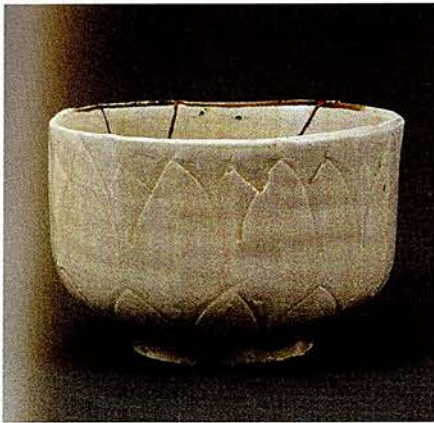


그림 12 북송 정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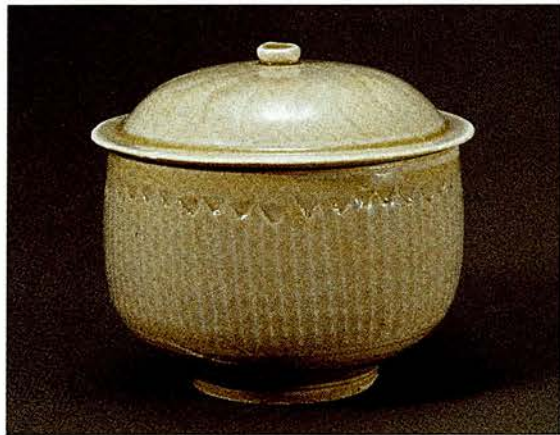


그림 13 북송 정요

고려대학교 출판부

해저인양 청자로 본 고려도자의 제작과 유통

장남원(이화여자대학교)

해저인양 청자로 본 고려도자의 제작과 유통

장 남 원*

■ 목 차 ■

- I. 머리말
- II. 해저인양 고려도자 현황
 - 1. 신안 증도 2. 완도 어두리 3. 군산 비안도
 - 4. 군산 십이동파도 5. 보령 원산도 6. 군산 야미도
 - 7. 태안 대섬 8. 태안 마도 9. 무안 도리포
- III. 漕運과 자기 운반선의 침몰지역, 그리고 가마터
 - 1. 고려의 청자수취와 漕倉
 - 2. 자기 운반선의 침몰지와 漕運路
- IV. 船積陶器의 産地와 물품의 구성
 - 1. 인양도자의 산지와 그 성격
 - 2. 도자의 구성과 특징
- V. 맺음말

I. 머리말

세계 어디서나 도자기의 물류는 대체로 바다나 강과 같은 水路를 통해 이루어져 왔으므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동남아, 유럽, 아프리카 등 여러 지역의 海路上에서 많은 도자기들이 인양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안선의 발굴을 포함 14건의 인양발

굴과 여러건의 수증지표조사가 이루어져왔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서남해안 일대에서는 많은 양의 고려시대 자기가 인양되어 한국 도자사에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였음은 물론, 함께 출토된 금속기와 木簡 등은 도자기의 종류와 조형 같은 실상 뿐 아니라 선상생활과 도자의 유통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 주고 있다.¹⁾ 문화재청에 따르면 해저매장 관련 신고된 유물 건수는 고려시대 유물이 전체의 50%로 가장 많고 청자의 수량 또한 많아서 고려시대에 연근해 해상로를 통한 자기 운송이 그 어느시대 보다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고려의 257개 所 가운데 절반 가량이 전라도와 충청도에 집중된 것도 수공업 제품의 수요가 많았던 개경에 해상 교통로를 통해 운 반하기 쉬운 지리적 요인에 기인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본다.²⁾

한편, 조선시대에는 전체적으로 자기수요가 더욱 증가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조선은 해로를 통한 조운보다는 내륙에 요장의 설치가 늘어나고, 특히 왕실에서 사용하기 위한 도자기를 제작하기 위한 관요가 한양과 가까운 경기도 광주군에 별도로 설치되면서 고려에 비해 해상로를 통한 도자의 운송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던 것으로 파악된다.³⁾

따라서 고려시대 도자의 제작과 사용에는 해상로를 통한 유통과 물류의 문제가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것이고 유통의 편의와 적절성을 위해 요장의 설치와 선적 등이 이루어졌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초기청자 제작시기 개경을 중심으로 황해도와 평안도, 경기도 일대에 집중되어있던 자기 요장은 차차 서해안, 서남해안으로 그 제작지가 확대·이동하였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러한 가마의 이동과 새로운 요장의 개설은 소비지에 인접하려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일정한 유통의 시스템이 생겨나면서 유통과정에서 물류의 집적과 선적 등에 유리한 조건을 고려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지금까지 해저에서 인양·발굴된 고려시대 도자를 중심으로 그 현

*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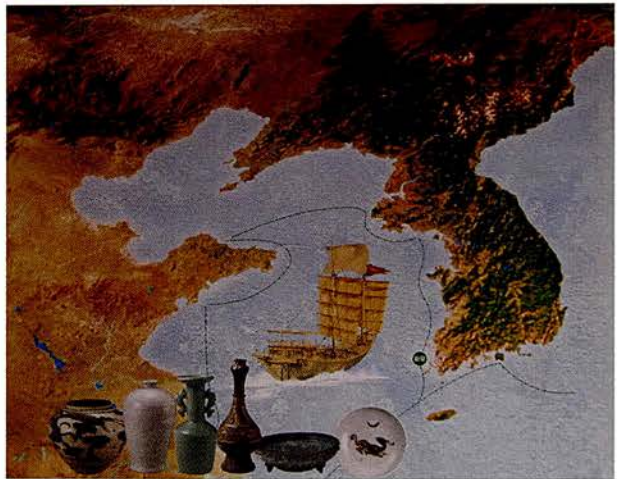
- 1) 文化財管理局, 『莞島 海底遺物』, 1984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바다로 보는 우리역사』, 2003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務安 道里浦 海底遺蹟』, 2003 ; 김영원 외 지음, 『항해와 표류의 역사』, 2003, 술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도자길·바닷길』, 2004 ; 국립해양유물전시관·전라북도, 『群山 飛雁島海底遺蹟』, 2004 ; 日本國立歴史民俗博物館, 『東アジア中世海道』, 2005 ; 國立海洋遺物展示館, 『群山十二東波島 海底遺蹟』, 2005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保靈 圓山島 水中發掘報告書』, 2007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群山 夜味島 水中發掘報告書』, 2007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고려청자 보물선』, 2008.
- 2) 박종기, 『500년 고려사』, 푸른역사, 1999, pp.231-232.
- 3) 고려후기 군현제의 변화와 조운제의 변화로 기존에 국가가 조운을 관장하던 것에서 군현이 관장하게 되었고 나아가 왜구의 침탈 등은 해상을 통한 조운의 상당수가 陸運으로 바뀌게 되는 등 변화의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고려사 권39, 공민왕 5년6월, 7년 4월 ; 이정희 저 『고려시대 세제의 연구』, 국학자료원, 2000, pp.84-90.

황을 정리하고 나아가 도자기 운반로와 제작지의 관계, 漕運의 관계 등을 살피며, 선적과정에서 집적되는 가마군의 유물양상을 파악하여 소비지 유적에서 보여주는 도자사용 현상을 易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Ⅱ. 해저인양 고려도자 현황⁴⁾

1. 신안 증도 <그림1>

전라남도 신안군 曾島面 防築里 道德島 앞바다에서 발굴인양된 유물들로 1975년 8월 조업중이던 어부의 그물에 청자화병 등 6점의 유물이 발견된 것이 계기였다. 1976년 10월 16일에 1차 조사작업에 착수, 이후 9년간 11차에 걸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발굴인양된 유물은 크게 나누어 도자기류 및 기타 유물 2만 2,000여 점, 동전 약 28t, 紫檀木 1,017개, 船體 조각 445점 등이다. 이중 도자기류는 출토유물 대다수를 이루는 1만여 점이 龍泉窯系 생산품이며, 그밖에 定窯系 백자와 景德鎮系 백자도 있다. 금속제품 729점은 祭器類 鍔대 銅鏡 취사용기 등 다양하다. 그밖에 버루·숫돌·맷돌 등의 석제품도 인양되었다. 목제품으로는 도자기를 담았던 상자와 칠기류 등의 용기가 인양되었으며, 목제상자 안에서 나온 작은 物票 364점은 특기할 만하다.



<그림1> 신안선의 항로와 도자기

발굴 결과 해저면 아래서는 길이 약 20m 너비 6.9m 정도의 목선이 매몰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선체 내부에 적재된 도자기들은 크기 70×70×50cm 정도의 목제상자에 정연하게 격납되어 있었는데, 10개 또는 20개씩 끈으로 묶여 포장된 점으로 보아 무역 상품이였음을 알수 있다. 침몰선은 중국 목선으로서, 도자기의 양식, 동전의 글자, 칠기의 干支銘, 목간의 내용 등을 근거로 할 때 침몰 연대는 1331~50년경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물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광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4) 조사현황은 주1)의 보고서 및 문화재청 공개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2. 완도 어두리 <그림2>

1983~84년에 걸쳐 전남 완도군 어두리 앞 해저에서 고려시대 木船과 함께 30,645점의 청자가 인양되었다. 이 가운데 15점의 매병과 장고 등 특수 대형기에서 철화기법이 사용된 것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은 무문의 청자류이다. 이외에 반구장경병의 동체에 음각의 연판문을 새긴 것이 있다. 주요 기종 가운데 碗은 다른 기종에 비해 고급으로 번조되어 우선 제작단계부터 질이 고운 태토를 사용하였으며 거의 疊燒하지 않았다. 물론 흑갈색이나 녹갈색을 띤 것들이 포함되지만 다른 기종에 비해 질은 고급이다.



<그림2> 완도 어두리 인양 청자

3. 군산 비안도⁵⁾ <그림3>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소재, 변산반도 북쪽의 비안도 인근 해저에서 인양된 수 백 점의 고려시대 비색 청자이다. 어부의 잠수 어로작업 중 우연히 해저에서 청자를 발견하여 신고함에 따라 알려졌다. 문화재청 목포해양유물전시관의 수중탐사팀에 의해 긴급 탐사가 실시되어 세상에 공개되었다. 인양된 고려청자는 해저에 가라 앉았던 것이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퇴적층으로 덮여 있었다가 최근 인근의 새만금방조제 건설로 인해 물살이 빨라져 해저의 퇴적층이 깎여나가면서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기형, 기종 및 문양과 質로 보아 유천리 도요



<그림3> 군산 비안도 인양청자

5) 국립해양유물전시관-전라북도, 『群山 飛雁島 海底遺蹟』, 2004.

지에서 제작되어 인근의 즐포항을 거쳐 개경 등지의 관청 소용품으로 보급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4. 군산 십이동파도 <그림4>

십이동파도 수중조사는 군산 옥도면 십이동파도 인근의 안포해역(E126° 13' 84 3" , N 35° 59' 491")에서 이루어져, 조사결과 선체 14片을 비롯하여 도자기 8,100여 점, 석제 닻장(닻 부속구), 밧줄(닻줄 推定), 철제 숯, 청동 손가락 등이 인양되었다. 또한 도자기의 운송과 적재에 필요한 짚과 갈대, 나무 썩기 등이 출토되어, 도자기의 적재방법과 그 재료들을 보여주었다.

십이동파도선은 뱃머리를 동서로 향하고, 15° 정도 좌측으로 기울어진 채 매몰되어 있었는데, 구조는 중앙에 평탄한 저판을 깔고, 좌우 양현에 만곡중통재를 결합한 전형적인 평저형의 韓船이다. 유물은 청자가 대부분으로, 기종은 가장 많은 출토량을 보인 대접과 접시 외에 완, 병, 호 등의 일상생활 용기가 주류를 이룬다.



<그림4> 군산 십이동파도 해저 청자발견 상황

5. 보령 원산도

충남 보령군 오촌면 원산도리 해안에서 북편으로 약 300m떨어진 해역에서 1,000점의 고려중기 청자편들이 수습되어 알려졌는데, 음각상감등의 질이 좋은 청자들이었다. 원산도에서 출토된 도자기는 완형으로 발굴되지는 않았지만 13세기 전반기의 최고급 청자 파편이 다량이었다. 일부 대접의 굽 부분에서 강진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O’ 표시가 음각되어 있었다. 음각, 상감, 양각 등 문양이 많았으며, 규석받침의 양질자기들이 주류를 이룬다.

6. 군산 야미도 <그림5>

전북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 근해에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차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긴급조사와 발굴조사 결과 780점의 자기와 도기편들이 인양되었으며, 인양당시 해저에는 유물들이 7.0m 깊이의 바닥층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거나 문혀 있었고, 일부 지점에서는 청자



<그림5> 군산야미도 인양 조질청자

대접들이 40여점 이상씩 가지런히 포개져 문혀 있었다. 발굴된 청자대접은 전체적으로 높이가 낮고 기벽도 매우 얇아 가벼운 편이며, 거친 태토에 어두운 암갈색조의 유약을 시유했으며, 鎔融 상태가 불량해 유약이 벗겨지고 산화된 것이 많아 서남해역 가마에서 지역수요로 제작되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그밖에 선상용품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질도기대형호와 시루로 보이는 연질도기편 등이 소량 인양되었다.

7. 태안 대섬 <그림6>



<그림6> 태안 정족리 대섬 해저인양 청자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대섬 앞바다에서 2007~2008년에 걸쳐 수중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고려청자를 다량으로 적재한 선박을 발견하였다. 발굴조사 지점은 조석간만의 차가 심하고, 조류가 빠른 해역으로 예로부터 안흥 일대는 難行梁으로 불릴 만큼 선박 침몰 사고가 빈번하여, 운하의 굴착을 시도한 기록이 있다. [고려사 권제16 세가 인종12년(1134년) 7월, 조선왕조실록 태종 12년(1412년) 11월] 청자는 총 23,462점이 인양되었다.

적재상태는 청자 사이에서 썩기목재가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이전에 조사한 군산 십이동파도와 동일한 적재방법으로 완충재(짚)와 받침 썩기목재를 이용하여 끈으로 묶어 포장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과형주자를 缸속에 벧짚으로 완충하여 적재한 유물을 통해 기형에 따라 포장방법을 다르게 하였음을 보여준다.

청자는 다양한 기종문양·유색·번조방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굵이나 번조받침의 형식이 유사하여 동일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유약의 시유상태가 매우 좋은 고급품이며, 기종은 瓜形注子, 缸, 鉢, , 접시, 완, 받침대, 향로 등 다양하다. 문양은 앵무문, 모란당초문, 철화문, 화엽문, 연판문, 어문 등 다양하며, 상감청자는 보이지 않는다. 주로 모래섞인 내화토빚음 받침을 사용하여 단독 또는 첩소하였다. 번조받침 등으로 보면 강진의 용운리 10-II층--나 유형에 가까워 12세기 후반~13세기 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본다. 강진에서 생산하여 왕실이나 귀족층을 소비자로 하는 개경을 향해 항해하던 중 침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8. 태안 마도 <그림7>

가장 최근에 조사가 이루어진 곳으로 2008년 5월~7월 긴급조사 및 수중탐사를 실시하여 515점을 인양하였다. 정죽리 대섬과 매우 가까운 곳으로 충남 태안군 근흥면 馬島 서방 300미터 해역이며 예로부터 경상, 전라도 조운선의 주요 통과 해



<그림7> 태안 마도 해저 발견 청자

역으로 조류와 물길이 빠르고 해난 사고가 잦아 難行梁이라 불리는 곳이다. 수습된 유물

의 기종은 대접, 완, 잔, 접시 등 다양하며 같은 기종에서도 문양과 번조방법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여 질적 차이가 확인되고 있다. 유물은 번조기법, 문양 등 양상으로 볼 때, 12세기 후반~13세기 전반 경에 부안 또는 강진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주변 해저 지형의 변화로 인하여 갯벌 매장상태의 유물이 노출된 것으로 보이며 4곳의 발굴지점에서 3꾸러미(줄) 단위로 유물이 출토되는 양상이다.

9. 무안 도리포 <그림8>

무안 해제면 송석리 도리포 앞바다 지역으로 3차례에 걸친 발굴조사로 고려청자 638점을 인양했다. 유물은 상감청자이며 전형적인 14세기 후반 양식을 띠어 소위 간지명 청자보다 시기적으로 늦게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작지는 강진 대구면 사당리 10호로 명명된 미산부락 부근으로 짐작된다. 문양은 구름, 봉황, 국화, 모란, 연꽃, 버들 무늬를 찍어서 표현하였다. 고려 후기 청자의 특징과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문양의 시대적 변천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조선시대 분청사기로 옮겨가는 시점의 정황을 보여주는 유적이다.



<그림8> 무안 도리포 해저인양 상감청자

Ⅲ. 漕運과 자기 운반선의 침몰지역, 그리고 가마터

1. 고려의 청자수취와 漕倉

고려의 공물은 중앙정부가 주·부·군·현 등 지방관청을 대상으로 부과했던 현물세로, 광종대에 州縣의 歲貢이 정해졌다.⁶⁾ 고려는 이미 신라시대 수취체제가 보여주었던 모순을

6) 《高麗史》卷78, 志第32, 殖貨1, 田制 貢賦, 靖宗4年.

극복하기 위해 신라하대 호족들의 독자적 기반을 중앙정부 아래 편제하려 하였기 때문에, 지방제도를 마련해가는 과정에서 수취체제도 함께 정비되었다.

따라서 고려초부터 백성을 동원하여 役을 부과하기도 하였으나 아직 정착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며⁷⁾ 본격적으로 정비가 이루어진 것은 후삼국이 통일된 이후, 군현의 이름과 명칭이 개편되고 군현으로부터 공물을 거두는 등, 토지의 분배와 稅源을 파악하기 시작한 태조 23년(940)경부터 본격화되는 것으로 이해된다.⁸⁾ 이후 광종대를 거치면서 제도가 보강·수정되었고⁹⁾, 성종대에 이르면 완성되었다.¹⁰⁾

고려는 지방통치를 위해 군현제를 정비하면서 10세기초 정종 때 강변 또는 해안에 조창을 설치했는데, 이때 지정된 조창이 충주 德興倉 등 12조창이다. 그후 현종대(1009-1031)를 거쳐 문종대(1046-1083)에 황해도 장연의 安瀾倉을 추가하면서 13조창이 성립되었다.¹¹⁾ 13漕倉은 충북 忠州--德興倉 / 강원 原州--興元倉 / 충남 牙州(牙山)--河陽倉 / 충남 富城(瑞山)--永豐昌 / 全北 保安(扶安)--安興倉 / 전북 臨陂(群山)--鎭城倉 / 전남 羅州--海陵倉 / 전남 靈光--芙蓉倉 / 전남 靈巖--長興倉 / 전남 昇州(順川)--海龍倉 / 경남 泗州(泗川)--通陽倉 / 경남 合浦(昌原)--石頭倉 / 황해 長湍--安瀾倉 등이다. <그림9>

조창은 감독관인 判官이 주재했는데, 이들은 外官이지만 중앙에서 직접 파견한 관리였다. 조창은 촌락을 단위로 영역이 정해져 있었으나 행정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어서 인근 군현에 예속되어, 세곡의 수납·운송을 전담하며 중앙의 통제를 받았던 것이다.

조세운반은 현물세를 운반하는 수역이 있고, 공물을 운반하는 수역도 있다. 공물의 징수는 郡縣民의 요역징발에 의해 운반되었다. 공물을 운반만 하는 수역이 있고, 생산과 운반을 모두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아직, 화폐경제 체제가 아니었으므로 쌀이나 잡곡, 면포·마포 등으로 조달되는 조세는 물량도 많지만 무거웠으므로 해로나 수로를 통해 선박에 의존했다. 州郡에서 거둔 조세는 인근의 曹倉으로 운반되었다가 다음해 4월(개경에서 가까운 곳)이나 5월(개경에서 먼 곳)까지 개경의 京倉으로 운반을 마치도록 규정되어 있었

7) 《高麗史》卷2, 世家, 太祖 17年 5月.

8) 태조23년에는 役分田이 설치되었고, 공물수취를 위한 今有·租藏轉運使가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보아 이후부터 공물의 수취가 본격화된 것으로 이해된다. 박종진, 『고려시기 재정운영과 조세제도』, 2000, 서울대출판부, 2000.

9) 광종 즉위년(949), 州縣의 공물이 정해지고 良田과 호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10) 성종 2년(983), 공해전 지급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고, 향리직제를 고쳐 戶長·副戶長 등의 새로운 명칭이 조정되는 등 지방지배를 위한 호등제의 편제가 시작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후 성종5년(986) 전국적인 호구제도가 실시되는 것도 지방지배를 위한 같은 맥락의 조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정희, 앞 책, pp.38-39.

11) 《高麗史》卷79, 志第33, 殖貨2, 漕運

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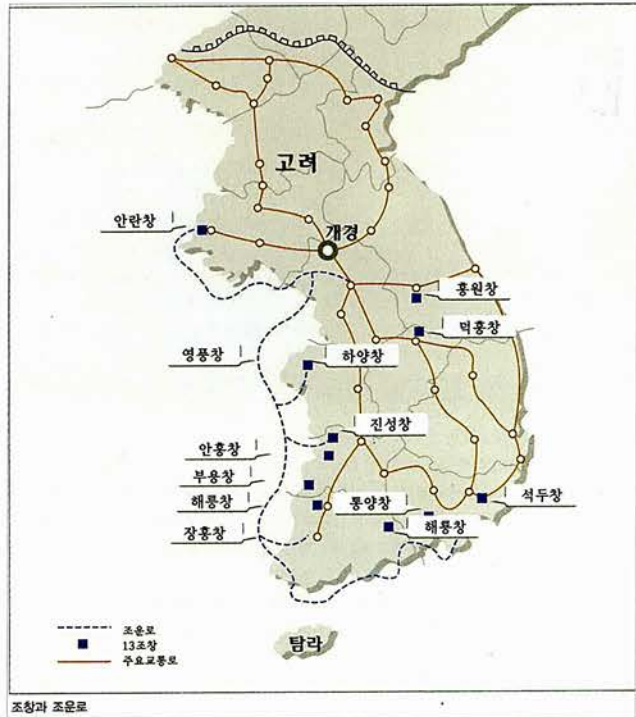
즉, 전국에서 고을 단위로 징수한 세곡을 그 인근의 강변이나 해안에 설치한 창고에 모아두었다가, 일정한 시기에 선적하여 수도로 운반하는 것이다.¹³⁾ 사실 음력 6월부터 8월 사이에는 장마나 태풍이 있었으므로 그 기간을 피해 안전하게 조운을 하려면 음력 3월 중으로는 출발을 시켜야 5월까지 안전하게 개경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해로를 이용하는 漕運 과정에는 풍랑과 침몰 등 사고가 잠재되어 있었으므로 그에 대한 처리 조치도 정해두고 있었다. <고려사>에 따르면, “정한 기한내에 출발

하였으나 바람이 순조롭지 못하여 키[棹]잡이 3명 이상, 뱃군[水手], 잡인(雜人-잡부) 5명 이상이 米穀과 함께 침몰한 경우에는 조세를 다시 징수하지 않으며, 제 기한보다 늦게 출발하였으면서 키잡이 뱃군의 3분의 1 인원이 빠져 죽은 경우에는 그 고을의 관장[員], 색전(色典-해당 사무를 맡은 인원), 키잡이 뱃군 등에게 평균하게 징수하게 하였다.” 고 하였다.¹⁴⁾

고려시대 공물의 품목으로는 黃金, 白金, 白赤銅, 鐵 같은 광물과, 牛皮, 筋, 牛角, 馬, 酒肉, 熊掌, 豹胎, 맹수가죽, 밤, 잣, 해산물, 종이, 기와, 떡, 도자기, 옹기 같은 수공품과 직물류 등이 기록에 나와 있다.¹⁵⁾ 공물품은 그 제작과 조달이 수공업품 생산 ‘所’ 와

<그림9> 고려시기 조창과 조운로



12) 《高麗史》卷79, 志第33, 殖貨2, 漕運

13) 세곡을 실어나르는 선박은 漕船, 조선의 뱃길은 漕運路, 세곡을 모았다가 선적하여 조운을 출발시키는 창고를 漕倉, 수도의 세곡 수납 창고를 京倉이라 한다. 국가 재정 중 세곡 의존도가 높았으므로 조운은 중요한 사안이었고, 따라서 이 과정에 국가의 일정한 통제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14) 《高麗史》卷79, 志第33, 殖貨2, 漕運, “限內發舡因風, 失利梢工三人以上, 水手雜人五人以上, 并米穀漂沒者勿徵, 限外發舡, 梢工水手三分之一敗沒者, 其官色典, 梢工水手等, 平均徵納.”

일반 군현들에서 맡았다. 所에서 완제품이 만들어져 貢上되는 경우와 원자재가 남품되어 개경등지에서 완제품으로 가공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청자를 비롯한 자기류는 前者에 해당한다.

조창을 경유하는 고려의 조운로는 크게 해안지역과 내륙지역으로 나뉘는데, 내륙에서는 충주 덕흥창과 원주 흥원창이 대표적이다. 충주는 충주劉씨 유궁달의 딸이 태조 왕건의 세 번째 부인이 되는 등 위상이 높았고 고려시대에도 중부지역의 요지였다. 또 남한강이 관통하고 있어 내륙이지만 강을 이용한 조운이 편리하여 경상도 지역과 충청도 지역에서 陸運으로 거두어 들인 세금을 남한강 수계를 이용하여 운반할 수 있었다.

원주는 성종 14년(995) 전국의 행정구역을 10도 12목으로 개편할 때 충원도(현재 충북)에 소속되었다. 1018년(현종 9)에 군으로 바꾸어, 영월군과 제천군을 속군으로, 평창현·단산현·영춘현·주천현·황려현을 속현으로 포함한 큰 군이 되었다. 충렬왕때((1308) 원주목으로 승격하여 행정의 중심지가 된다. 남한강의 지류인 섬강이 합류되면서 水系가 발달하였고 주변의 철원평야와 문막평야 등 쌀의 생산이 많았던 지역이다.

아직 13창이 완성되기 전 정종때 12창倉에 각각 漕船의 수효를 배정하였던 기록이 있다. “석두, 통양, 하양, 영풍, 진성, 부용, 장흥, 해룡, 해릉, 안흥은 각각 배 6척씩인데 모두 哨馬船이요, 한 척에 1천 섬을 싣게 되어 있었고 덕흥은 20척, 흥원은 21척인데 모두 平底船이며 한 척에 2백 섬을 싣게 되어 있었다.” 는 내용이다.¹⁵⁾

이때 哨馬船은 ‘船底不廣’의 형태였던 것으로 알려지므로 선체 바닥이 뾰족하여 내륙의 水路가 아닌 연안 해로의 항해에 적합한 선박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平底船은 바닥이 편평하여 내륙의 수로를 운행할 수 있는 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¹⁶⁾

그런데 이들 두 종류의 배는 각각 그 용량이 달랐다. 내륙에서 사용했던 평저선은 쌀 200석을 적재할 수 있었고, 해상에서 운행했던 초마선은 1,000석이였다. 따라서 할당된 선박을 전체 가동했을때 수용할 수 있는 1회 총량은 초마선은 6,000석(6척×1,000석)이고, 평저선은 덕흥에서 4,000석(20척×200석), 흥원에서는 4,200석(21척×200석)이였다. 전체를 더해보면 해안의 10개 지역 倉에서 움직일 수 있는 물동량은 60,000석(6,000석

15) 《高麗史》卷78, 志第33, 食貨1, 田制, 貢賦, 靖宗7年 正月, 文宗20年 6月, 睿宗9年 10月.

16) 《高麗史》卷79, 志第33, 殖貨2, 漕運 “靖宗朝, 定十二倉漕船之數, 石頭通陽河陽永豐鎮城芙蓉長興海龍海陵安興各船六艘, 並哨馬船, 一船載一千石, 德興二十艘, 興元二十一艘, 並平底船, 一船載二百石.”

17) 그러나 실제로 전남 해남 연해에서 인양된 莞島船의 경우 바닥이 편평한 평저선의 형태를 띤 것으로 밝혀져, 선박의 구조와 용량에 대한 판단은 차후로 미루고자 한다.

×10倉), 내륙 2개 倉에서 움직이는 물동량은 8,200석(4,000석+4,200석)이었다. 이와 같은 비율은 아마도 고려 중·후기로 가면서 변화되었겠지만, 기본적으로 고려의 조운은 해상을 통한 수합이 내륙에 비해 월등히 많았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2. 자기 운반선의 침몰지와 漕運路

앞 장에서는 조창과 조세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기운반선의 침몰지역에 대한 지리적 성격과 인근지역의 요장들에 대해 점검해보자. 지금까지 조사된 고려시대 자기 운반선의 침몰지역을 살펴보면, 대개는 고려의 조운로상에 있다. 이는 자기가 공물이었고, 자기 운반선이 곧 조운선이었을 가능성과, 기존의 조운로를 이용하여 貢物의 성격이 아닌 청자를 운반했을 가능성, 혹은 조운로의 漕船을 활용하여 공물과 사사로운 판매용품 등을 함께 선적했을 가능성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물론 현물 조세가 공물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고려의 일반적인 정황을 전제한다면 첫번째 경우가 유력하지만, 아직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고려의 자기수공업의 실정상 2, 3의 경우도 가능하다고 본다.

조운선의 운송에 관해서 “문종 33년(1079) 정월에 왕이 명령을 내려 公私漕運에서 키잡이 뱃꾼들이 파괴, 침몰되었다거나 (곡물의 일부가) 물에 빠졌다거나 하는 구실을 붙여 가지고 저들끼리 나누어 먹은 자들에게서는 모두 그 곡물을 받아 내기로 제정하였다”는 내용을 보면,¹⁸⁾ 아마도 公田에 대한 조운과 함께 私田에 대한 田租로서의 조운과정에서 핑계를 대어 물품을 빼돌리는 일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최근 태안 정죽리 대섬 앞바다에서 인양된 청자 적재선에서 고려시대 木簡이 발견되었는데, 그 내용 가운데 개경의 여러사람에게 배분되는 물표가 일부 해독되면서 청자의 제작과 배분(또는 유통)에 관심이 모아졌다. 정죽리 목간은 현재까지 약 34여점이 알려졌으며, 목간의 형태와 내용의 표기 등을 기준으로 몇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다.

모두 도자기의 발송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표기구성에 차이가 있었다. <발송인(사람이름, 지역이름, 간지)/수취인(구체적인 이름, 관직명)/발송물품 수량>을 구성된 것과 <수취인000>만 기록된 경우가 있었다. “宅上”이라 하여 직접

18) 《高麗史》卷79, 志 第33 食貨2, 漕運, “文宗三十三年正月, 判公私漕運穀米, 梢工水手等托爲敗船溺水, 私自分用者, 並令徵之.”



〈그림10〉 태안출토 목간

누구의 댁에 보낸다는 명시가 있는 것도 있지만, “隊正仁守” “安永戶” “崔大卿” 등처럼 직접적 수취자가 아닐 수도 있는, 즉, 중간 수취자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좀 더 많은 자료의 축적이 이루어지면, 조운로를 통한 청자의 운송목적과 유통에 대한 정황이 보다 정확히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¹⁹⁾ 〈그림10〉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고려중기 이후 증가하는 공물의 대납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2세기 이후 이같은 현상이 증대되면서 오히려 생산을 공물의 납품을 위한 민간생산이 증가하였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13세기에 이르러 공물을 대납하는 청부자가 등장하여 諸司官吏, 謀利之人, 貨殖之徒, 郡人住京者 등으로 지칭되고 있었는데, 이들은 지방의 공물을 거두어 미리 대납을 마친 후 나중에 民으로부터 그 댓가

를 배로 받기도 하고, 2~3년 내지 4~5년치 공물을 미리 징수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공물 대납자가 자신의 물건으로 대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물품을 미리 수집, 비축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²⁰⁾ 이 때 청자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고, 정족리 목간의 ‘耽津’(탐진, 지금의 강진)이라는 생산지 지명과 개경에서 수취하는 몇 사람의 서로 다른 이름과 직책 등이 있는 점도 공물납부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림11〉 조창과 조운로, 도자기발견 해역

그러면 실제로 도자기의 인양지점 내지 도자기적재 침몰선의 발견위치와 漕倉의 지리적 관계를 살펴보자. 청자의 인양지점 내지 선박

19) 임경희, 「태안 청자운반선 출토 고려 목간」, 『고려청자 보물선, 강진, 태안, 그리고...』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8, pp.177-183 ; 임경희·최연식, 「태안 청자운반선 출토 고려 목간의 현황과 내용」, 『신출토 木簡의 향연』, 한국목간학회, 제2회 학술대회 발표집, pp.23-35.

20) 이정희, 앞 책, pp.205-206 ;

침몰지점은 서남해안의 11개 조창을 지나는 조운로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²¹⁾ <그림11>

그러면 지금까지 조사 보고된 유적들을 살펴보자. 위의 지도에서 보듯이 13개창 가운데 원주와 충주를 제외하면 모두가 서남해안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으므로 연근해 유역을 왕래하는 조운로가 발달되어 있었고, 도자기 운송 역시 그같은 경로를 따라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재 도자가 인양되었거나, 선박이 발견된 지점만으로는 정확히 해당 유물이나 배가 어느 촌에서 출발한 것인지 명확히 알기 어려우며, 유물의 세부 조형적인 특징을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표1]

[표1] 고려시대 도자 및 도자적재 선박의 발견지역

행정구역	연번	발견지점	발굴유무	수량(점)
양광도 (경기, 충청)	1	경기도 용진반도 근해		
	2	충남 당진군 근해		
	3	충남 서산군 근해		
	4	충남 태안군 안면도 근해		
	5	충남 태안반도 해저	●	
	6	충남 보령군 근해		
	7	충남 보령시 원산도	●	≒1,500
	8	충남 서천군 근해		
	9	충남 태안군 정죽리 대섬	●	23,462
	10	충남 태안군 마도	●	513
전라도	11	전북 옥구군 미성읍 연도리 근해		
	12	전북 군산시 옥도면 근해(무녀도 외)		
	13	전북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해저	●	3,177
	14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해저	●	8,118
	15	전북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	●	780
	16	전남 영광군 낙월도 근해		
	17	전남 무안군 해제면 도리포 근해		
	18	전남 무안군 해제면 도리포 해저	●	638
	19	전남 목포시 충무동 달리도 근해	●	
	20	전남 신안군 암태도 근해		
	21	전남 해남군 산이면 화원반도 근해		
	22	전남 완도군 고금면 약산도 근해		
	23	전남 완도군 고금면 어두리 해저	●	30,6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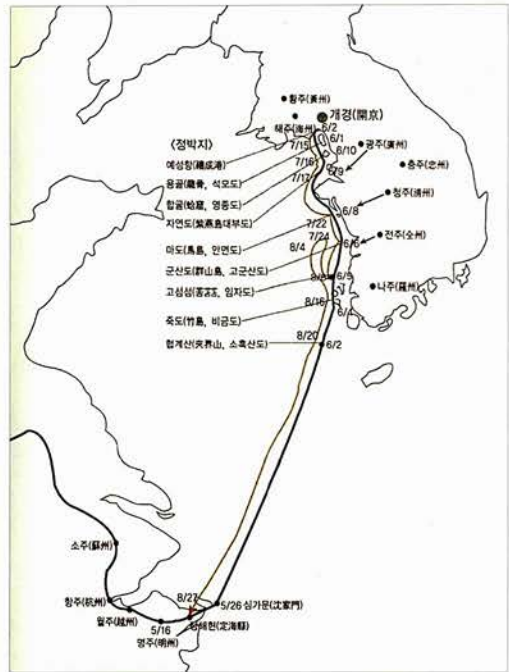
21) 조운로와 침몰지점에 관해서는 해양유물전시관에서 출간된 주1)의 여러 자료에서 밝힌바 있다.

한편, 12세기에 출간된 《宣和奉使高麗圖經》에는 1123년 北宋의 國信使 일행이 고려를 방문하고 돌아가는 여정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루트를 살펴보면 역시 당시 고려의 조운로와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²²⁾〈그림12〉 宣和 5년(1123) 음력 3월 14일 북송의 수도 하남성 開封을 출발하여 절강성 明州[지금의 寧波]에 도착하고, 6월 2일에 우리나라 소흑산도의 夾界山에 도착하였다.

우리나라 영해에 도착한 때로부터 개경까지의 행로를 보면, 협계산(소흑산도)→ 죽도(비금도)→ 고섬섬(임자도)→ 군산도(고군산도)→ 마도(안면도)→ 자연도(대부도)→ 합골(영종도)→ 용골(석모도)→ 예성항으로 나타나 있다. 6월 2일에 소흑산도에 도착하여 예성항에 입항한 날이 6월 12일이었으므로 소요기간은 10일이다. 그 중간에 경유지마다 정박하여 1~2일을 머물렀고, 군산도·마도·자연도에서는 각각 劄州牧使·淸州牧使·廣州牧使의 영접을 받았다. 물론 사신단을 태운 배는 특별히 북송황실에서 건조한 神舟였으므로 성능이 좋았을 수도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연근해를 운항하기에는 고려선이 더 유리했을 가능성도 있다. 위 경로의 소요기간으로 볼때 고려의 평상시 조운로와 거의 일치하므로 조운선이 남부지방 倉에서 개경까지 도달하는데는 그리 오랜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물론 중간에 다른 倉을 경유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 경우 시간은 더 걸릴수도 있었을 것이다.

조운로는 고려에서 많은 양의 물자를 한꺼번에 수송하기에는 가장 적당한 루트였을 것이고 청자는 다른 품목에 비해 중량이 무겁고 깨지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고려시대의 경우 대부분 해상의 조운로를 따라 운송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해안에 위치한 이른바 ‘도자 임해공업단지’의 발달은 필연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청자를 어떤 방식으

〈그림12〉고려도경에 나타난 북송사절단의 해로



22) 이하 고려도경에 보이는 북송사신단의 海路와 재구성한 지도는 徐兢 저, 조동원·김대식·이경록 이상국·홍기표 공역, 『중국 송나라 사신의 눈에 비친 고려풍경--고려도경』, 황소자리, 2005 참조.

로 거두어 선적까지 하였는지는 기록에 나타난 바 없다. 앞의 정황을 통해 다른 공물들과 마찬가지로 생산지에서 거두어 습으로 수합되고 일정한 시기에 선적되어 개경등지로 운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습의 위치는 도자를 제작했던 지역들과 일정한 관계가 있었을 것이고, 고려 초 개경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던 청자백자요장이 차차 서남해안 일대로 확산되어 나가는 현상도 고려시대 조세제도와 국가적 통제,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청자의 제작과 운송이라는 현안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본다.

이에 대한 문제는 본 발표에서 심도 있게 다루기는 어려웠으므로 필자는 물론 다른 연구자들의 관심을 촉구한다. 전축요를 사용했던 초기청자 요장이 경기·황해·평안도 일대에 분포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전축요계로부터 변화된 토축요 가마가 서남해안으로 퍼져간다는, 따라서 중부지방 전축요계 자기들이 남서부지방 토축요계 자기들에 비해 그 개시시기가 시간적으로 앞선다는 견해와²³⁾, 중부지방과는 서로 다른 요업계통을 가진 가마들이 비슷한 시기에 남부지방에서 발달하였다는 견해²⁴⁾의 차이도 어쩌면 고려가 지방을 통치하는 과정에서 완성되는 조세제도와 조운의 시행과정을 검토해 본다면 보다 선명하게 밝힐 수 있을것이라고 본다.

IV. 船積陶瓷의 產地와 物품의 구성

1. 인양도자의 산지와 그 성격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고려중기를 전후하여 도자의 공납이 같은 수취체제 아래 놓였었다면, 그리고 국가의 통제 아래 관리되고 있었다면, 또 같은 조운로를 이용하여 자기의 운반이 이루어졌다면, 자기의 조형과 제작기술 등은 공통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현재의 행정구역으로는 전라도, 충청도 등으로 구별되지만, 당시 조운로에서 보면 강진, 부안, 해남, 보령, 서산 등지의 가마터들은 가장 단거리 루트를 통해 단시간에 연계될 수 있는 네트워크상에 놓여 있는 셈이었다. 사실상 이 추측은 실제로 가마터와 소비지

23) 李鍾玟, 「韓國 初期靑磁의 形成과 傳播—塼築窯와 土築窯를 중심으로」, 『美術史學研究』 240, 韓國美術史學會, 2003, pp.51-75 ; 장남원, 「고려중기 청자 연구」, 해안, 2006.

24) 이희관, 「高麗靑磁史上的 康津窯와 扶安窯」, 『高麗靑磁 康津으로의 歸鄉 - 銘文·符號특별전』, 康津靑磁資料博物館, 2000, pp.61-80.

유적에서 발견되는 청자의 제작양상과 디자인 등을 통해 이미 확인된바 있다.²⁵⁾ 고려의 도자 사용자들은 굳이 강진산인지 부안산인지를 가리지 않고 일정한 질과 양식의 자기를 사용했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일정한 국가 공납 체계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당시 수공업 생산현황으로 보아, 所로 편제되어 있었던 강진이나, 所로 편제되지 않고 일반군현으로서 수공업 생산을 감당했던 부안이나 제작의 환경과 유통의 목적, 소비자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그림13〉 청자상감모란문 '辛丑' 銘 벼루

이와 관련하여 이희관은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靑瓷象嵌牡丹紋 '辛丑(1241추정)' 銘 벼루²⁶⁾의 〈그림13〉 명문내용을 예로 들어²⁷⁾ 康津窯와 扶安窯의 상호관계를 所와 所의 기술지원을 받았던 私窯의 관계로 설정한 바 있다.²⁸⁾ 그러나 직물류를 비롯하여 所의 생산물은 고려시기 군현공물의 주요 요소이긴 하지만 군현의 공물이 그것만으로 구성된 것은 아이였고, 所에서 생산된 金銀鐵 같은 품목도 모두 소에서 생산된 것은 아니었다. 더욱이 새로 생산지가 추가될 경우, 해당지역을 모두 所에 편제시키지는 않았다고 이해된다.²⁹⁾ 따라서 부안요의 성격을 私窯로 단언하기는 어렵다.³⁰⁾ 오히려 이 벼루의 명문은 강진보다 뒤늦게

25) 장남원, 「'康津유형'의 공유 현상을 통해 본 11~12세기 청자의 성격」, 『美術史學研究』 231, 韓國美術史學會, 2001, pp.77-100

26) 높이 2.9cm, 길이 13.4, 폭 10.2cm

27) 벼루의 굽 안바닥에는 총 3행 24字的 명문이 있는데 2행은 白象嵌으로 1행은 음각으로 각각 새겼다. 내용은 "辛丑年 5月10日 大口所의 前戶正 徐敢夫를 위하여 청자 벼루 한 개를 만들었다. 黃河寺"이다.

28) 李喜寬, 「高麗靑磁上的 康津窯와 扶安窯」, 『高麗靑磁, 康津으로의 歸鄉』-銘文·符號特別展, 강진청자자료박물관, 2000, pp.61-80.

29) 수공업 공물품은 소에서 생산된 것이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향, 부곡이나 일반군현 중에서도 생산되었다. 한 예로 문종17년(1063) 翼嶺縣과 西北面 成州 지역에서 황금이 나자, 三司에서 貢籍에 올려 지역공물로 삼을 것을 건의하였으나 결국, 이지역이 所로 편제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일반군현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비해 신분적으로 차별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한다. 서성호, 『고려전기 수공업 연구』, 1997,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종진, 『고려시기 재정운영과 조세제도』, 2000, 서울대출판부, 2000.

30) 구일회도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유천리 가마들은 여타의 所가 성립된 이후에 생겨난 요장으로 보아야하고 굳이 所로 편제했을 때 실익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일반군현의 상태로 요업을 지속 했을 것이라 하였다. 구일회, 「부안 유천리 고려도자 연구」, 『美術史論壇』 제25호, 2007 하반기, pp.93-96.

그 기술을 전수받아 가마를 운영하게 되었고, 그같은 관계속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강진 大口所의 前 戸正 서감부에게 감사의 뜻을 표해야 하는 사안이 있었고 그것이 벼루의 제작으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싶다.³¹⁾

이 때 개경을 상대로 했던 가마로는 주로 강진과 부안이 해당되며, 완도선에서 보여준 해남 진산리 등의 생산품은 주변지역의 지방수요가 더 많았을 것으로 본다. 현재 조운로 상에서 발견되는 비안도, 원산도, 정죽리 대섬, 정죽리 마도, 도리포 등의 적재 도자기는 주로 강진이나 부안산으로 보이는데, 기종과 질, 시대에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작 유형이 같은 맥락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강진과 부안은 고려국가의 조세와 공납이라는 체제속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수요를 맞추며 일정기간 공존했을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漕運의 루트를 공유했다는 관점에서 더욱 긴밀한 기술 및 조형의 관계를 유지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인양선의 침몰지점 및 그와 연관되는 조운로, 그리고 인근한 요장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면 실제로 인양된 도자들의 성격은 어떨까. 같은 배에 선적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인양품들을 보면, 한 지역 가마에서 생산된 도자 뿐 아니라 서로 다른 산지에서 만들어진 도자들이 함께 실려 있었다. 실제로 그 선적물품의 구성을 통해 수량과 비중 등을 몇 예를 통해 알아보자.

2. 도자의 구성과 특징

해저에서 인양출토된 도자들 가운데 계량적으로 출토품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는 완도, 십이동파도, 비안도, 야미도, 도리포 등의 유적이다. 물론 세부적인 문양의 종류와 굽형식, 번조받침 등까지는 체크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유물의 구성과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군산 십이동파도 유물은 신고품 622점을 포함하면 모두 8,743점이고, 이 중 신고품을 제외하면 청자는 총 8,118점이다. <그림14> 유물의 질과 유색등으로 보아 해남 신덕리 요지일대 생산품으로 추정된다. 기종은 다양하나 소형접시가 67%(5,540점), 대접이 23%(1,865점), 완이 3.6%(297점), 접시 1.8%(151점) 등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해남 신

31) 가마의 운영성격에 대한 탐구는 본 발표에서 다루기에는 복잡하고 큰 주제이므로 別稿를 기약하고자 한다.

덕리에 대한 전면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작품의 비율이나 경향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11세기 말부터 12세기경으로 추정되는 이 시기에 소형접시가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점은 특이하다.

모든 유물은 동일시기 생산품이며, 전체 유물 가운데 60%에 달하는 19,256점이 발·대접류이고, 완은 1,096점으로 3.6%, 접시는 9,879점으로 32.6%에 이른다.

한편 반구장경병도 103점 출토되어 0.3%를 차지한다.

완도선에서는 30,645점의 청자가 인양되었다. 구성은 강진 용운리 10호Ⅱ층이나 유천리 7구역 등 전형적인 고려중기 유형의 청자를 생산하던 요장들과 추이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용운리 10호Ⅱ층에서 碗이鉢이나 접시에 비해 적은 11.4%의 빈도수를 나타내었고, 유천리 7구역에서도 碗은 4.5%라는 빈도를 나타내는 점과 비교하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완도 유물은 발(또는 대접)이나 접시류를 월등하게 많이 생산하던 시기의 산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가장 비슷한 생산지는 해남 진산리 일대로 추정한다.

군산 비안도 인양도자 역시 대개가 청자이다. 6차에 걸친 조사로 3,177점이 수습되었다.³²⁾ 신고유물 243점을 제외하면 조사유물은 2,934점이다.〈그림15〉 보고서에는 기종, 기법, 문양 등에 대한 별도의 통계수치는 나와있지 않았지만, 유독 전체유물에 대한 유물 목록을 제시하여 유물명과 기법, 기종등을 명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수습유물 2,934점에 조형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³⁾

비안도 출토 청자의 기종은 대접·접시·잔·뚜껑·완·합·발 등 다양한데 주요기종인 대접은



〈그림14〉 군산 십이동파도 인양 청자

32) 국립해양유물전시관, 『群山 飛雁島 海底遺蹟』, 국립해양유물전시관·전라북도, 2004.

33) 이하 비안도 출토 청자 2,934점에 대한 속성분석과 통계는 이화여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아연 학생이 2007년 2학기 〈한국도자사〉 수업에 제출 발표했던 정리결과를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그림15〉 군산 비안도 인양 청자일괄

41%(1,207점), 접시는 40.05%(1,175점), 잔은 10.5%(308점), 뚜껑은 7.4%(217점) 등이었으며, 완의 비율은 십이동파도 시기보다 줄어 0.51%(15점)이었다. 비안도 청자에는 전체의 60%가량에 문양이 장식되어 음각(47%, 1,378점) > 양각(13%, 390점) > 상감(0.2%, 7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무문은 약 40%에 달했다. 그러나 철화, 백화기법은 보이지 않았다. 기종상 대접이 가장 많았으므로 문양 종류 가운데도 연판문(46%)과 앵무문(35%)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모란문, 당초문등이 뒤따랐다. 기종과 기법 문양간에 일정한 함수관계가 있었다.³⁴⁾

한편, 발굴자는 비안도 유물에 대한 과학적 성분분석을 통해 산지를 추정한다. 태토의 규소 함량에서는 비교적 유천리·진서리 지역과 유사하지만 일치하지 않았고, 유약에서는 유천리, 진서리와 거의 같게 나타나 같은 요업군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³⁵⁾ 이에 유물의 속성을 유천리 출토품과 비교해본 바 기종의 비율, 문양비중, 번조반침 등에서 유천리 7구역요지군 출토상황과 유사하여 생산지와 소비지로의 출고품 간에 동반유형이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인양품들은 대략 같은 요지에서 생산된 품목으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군산 무녀도 인근에서 일괄로 신고된 유물 가운데는 산지가 완전히 다

34) 圓光大學校博物館·馬韓百濟文化研究所, 『扶安 柳川里 7區域 靑磁窯址群 發掘調查報告書』, 2001.

35) 본 고, 주 32)보고서.

르다고 판단되는 매우 질이 떨어지는 조질청자가 양질청자와 함께 있어서 선적도자의 구성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를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신안선과 같은 遼航의 경우는 주문에 따라 여러지역에서 수합된 도자를 운반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연근해에서 불과 1개월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경우 여러지역의 倉에 정박하면서 서로 다른 도자를 집적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京倉에서는 별도로 창고를 두어 납품받은 공물을 수납하고 방출할 때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V. 맺음말

지금까지 발굴이 이루어진 해저유적 도자에 대해 그 개요와 발굴내용, 인양지점을 통해 고려시대 倉 및 漕運의 문제와 결부시켜 간략히 정리해보았다.

지금까지 확인된 고려의 所가운데 절반 가량이 전라도와 충청도에 집중된 것도 수공업 제품의 수요가 많았던 개경에 해상 교통로를 통해 운 반하기 쉬운 지리적 요인에 기인하는 바 컸을 것이며, 다른 물품에 비해 무겁고 파손되기 쉬운 자기는 고려시대 해상의 조운로에서 중요한 물품이었을 것이다.

조운로는 고려에서 많은 양의 물자를 한꺼번에 수송하기에는 가장 적당한 루트였을 것이고 다른 공물들과 마찬가지로 생산지에서 거두어 倉으로 수합되고 일정한 시기에 선적되어 개경등지로 운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倉의 위치 또한 도자를 제작했던 지역들과 일정한 관계가 있어서 공납품의 수급관계 속에서 요장의 개설과 흥망이 이루어졌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고려초 개경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던 청자·백자요장이 차차 서남해안 일대로 확산되어 나가는 현상도 고려시대 조세체제 확립과 그에 따른 국가적 통제,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청자의 제작과 운송이라는 현안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본다.

즉, 고려초 개경인근 가마터의 자기 생산만으로 부족한 공급을 공물로 거두게 되면서 자기 제작지가 확대되며, 고려의 전국적 지배체제 확립과 조세제도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10세기 말경부터 11세기 초에 이르면 조운로에 인접한 서남해안 일대에서 요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을 것이다. 해남, 고흥, 강진, 영광, 부안, 보령 등 대부분의 대규모 요지들은 조운로에 위치했던 사실과 깊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서남부지역 토축요의 발달에

대한 환기가 필요하다.

강진과 부안은 같은 조운체계에 놓여 세부적인 제작에는 차이가 있었을지라도 서로 동시에 또는 보완적으로 제작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때 부안지역보다 먼저 대규모 자기소가 개설되었던 강진지역은 고려말까지 주변지역에 기술적, 조형적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 부안은 所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공적인 통제아래 유천리를 중심으로 활동했을 것이다.

해상 교통로상에서 인양조사된 도자들, 다시말해 유통과정에서 발굴된 도자들은 생산지를 떠났으나 아직 소비지에 도달하지 않은 물품들이다. 따라서 정확한 산지의 추정이나, 소비의 주체를 알아내기란 쉽지 않았다. 해저인양 도자들이 주는 많은 암호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생산지에 대한 연구와 소비지에 대한 해석, 그리고 유통의 과정의 속성이 상호 유기적으로 파악될 때 가능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고려의 도자제작과 사용 실상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고려 중기 청자 가마의 운영

- '成'字銘靑磁群을 중심으로

구일희(국립대구박물관)

고려 중기 청자 가마의 운영

- ‘成’字銘 靑磁群을 중심으로 -

具 一 會

■ 목 차 ■

- I. 序 論
- II. 前期에서 中期로
 - 1. 변화의 배경
 - 2. 청자의 변화
- III. 中期 청자의 樣相과 가마 運營
 - 1. 中期 청자의 樣相
 - 2. 中期 가마의 運營
- IV. 結 論

I. 序 論

고려시대 청자를 시기 구분하는 방법은 다양하다.¹⁾ 이 글에서는 청자 생산 기술 도입기의 標識的 청자 및 햇무리굽완이 있는가의 여부를 前、中期의 기준으로, 몽고 침입 이후에 새로이 생긴 기종이나 문양이 있는가의 여부를 中、後期の 기준으로 삼아 고려시대 청자를 크게 前、中、後기로 나누고자 한다.

1) 시기 구분에 관한 諸說은 姜敬淑, 『한국 도자사의 연구』 (시공사, 2000), pp.105-123.

청자의 생산 기술은 중국 절강성의 월주요로부터 들어왔다. 따라서 생산 기술 도입기의 벽들로 만든 가마의 구조나 窯道具, 생산된 청자의 기종·기형·유색 등은 중국 월주요의 그것과 유사하였다.²⁾ 하지만 오래지 않아, 청자의 기종·기형·문양 등에 변화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한 변화에 대하여, 중기 또는 절정·성행기 등 그 명칭은 다르지만, 앞 시기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여 시기 편년의 기준으로 삼았었다.³⁾ 또한 변화된 청자를 생산했던 가마들과 소비지라 할 수 있는 각종 유적에서의 출토 양상을 비교·종합하여, 그러한 변화가 생겨난 청자들을 묶어 중기청자로 규정한 논문도 있다.⁴⁾

이 글은 기존의 연구 결과에 의해 전기와는 다른 중기 청자들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 강진 용운리 10-Ⅱ층에서 출토된 청자들 및 강진 사당리에서 수습된 ‘成’字銘이 있는 청자들의 조합과 일치한다는 사실에 기초를 두었다.⁵⁾

이 글에서는 특히 ‘成’字銘 이 있는 청자들을 중심으로 중기 청자 가마들의 운영 시기 및 방법, 廢窯의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前期에서 中期로

1. 변화의 배경

고려는 北宋과의 활발한 교류에 의해 도자기를 일상용기로 사용하는 북송 문화를 받아 들였으며, 그 영향으로 고려에서도 도자기의 사용이 급증하였다.⁶⁾ 그러한 사실은 전기에 비해 사찰이나 분묘 등 고려시대의 여러 유적에서 출토되는 중국도자기와 고려청자의 량이 증가한 것은 물론, 그 器種의 대부분이 일상용기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⁷⁾ 또한 최상

2) 李鍾玟, 『韓國의 初期靑磁 研究』(弘益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2).

3) 尹龍二, 『韓國陶磁史研究』(文藝出版社, 1993) pp.116~134 고려시대 청자를 크게 초·중·후기로 나누고, 1100~1250년을 중기로 하였다. ; 崔健, 『靑磁窯址의 系譜와 展開』, 『美術史研究』12(미술사연구회, 1998), pp.3~20 고려시대 청자를 5기로 나누고, 3기를 절정기(11세기말기~12세기 중기)·성행기(12세기 후기~13세기 말기)로 나누었다. 또한 강진의 製磁 기술이 파급되는 것은 모두 6기로 나누고, 4차 파급기(11세기 후기)·5차 파급기(12세기 전기~13세기 중기)를 설정하였다.

4) 張南原, 『高麗中期 靑瓷의 研究』(梨花女子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3), pp.200~205. 肅宗~高宗(1096~1259)을 중기로 편년하였다.

5) 國立中央博物館, 『康津 龍雲里 靑磁窯址 發掘調査報告書』(1996·1997) ; 張南原, 앞의 논문(2003) ; 具一會, 『扶安郡 柳川里 高麗陶磁 研究』, 『美術史論壇』25(韓國美術研究所, 2007), pp.76~79.

6) 尹龍二, 앞의 책(1993) pp.198~202.

7) 任眞娥, 『高麗遺蹟 出土 宋代磁器 研究』(成均館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2).

품이 아닌 일상용기용 청자 운반선의 발견이나 귀족층이 아닌 일반인의 墳墓에서 출토되는 도자기가 많은 것도 고려시대 도자기의 일상용기화를 보여 주는 또 다른 반증이 된다.⁸⁾ 하지만 수입된 중국 도자기와 강진 등에서 생산된 청자만으로는 고려사회 전체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였기에, 그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부안 등 중기 가마들의 요업이 촉발되었다고 여겨진다. 이는 북송에서 자기의 실용화에 따른 수요층의 확산에 의해 북방 자기 가마들이 활성화 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⁹⁾ 더불어 12세기 초에 관장제 수공업이 붕괴되어 사적인 가마운영이 가능해진 것도 중기 청자 생산 가마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큰 요인 중의 하나라 하겠다.

또한, 공식적으로 송과의 국교가 재개되는 문종 25년(1071) 이후 중국 도자기의 유입이 더욱 증가했을 것이며, 그러한 과정에서 당연히 고려청자의 기종·기형·문양 등에 북송 도자기의 영향이 생겨났다고 하겠다. 특히 遼와 金은 자기 생산에 필요한 장인들을 북송의 耀州窯와 定窯, 磁州窯 등에서 자국으로 데려가 자기를 생산하였다. 당연히 북송 자기의 영향이 遼나 金 자기에 나타났으며, 그것과 함께 遼와 金 磁器의 특징 또한 고려자기에 영향을 주었다.¹⁰⁾

결국 도자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까닭에 강진 이외의 지역까지 생산 가마의 확산이 이루어졌으며, 중국과의 교류 및 청자 생산 기술의 발전에 의해 中期 청자의 기종·기형·문양 등에 前期 청자와는 다른 변화가 생겨났다고 하겠다.

2. 청자의 변화

중기 청자와 전기 청자의 차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기 청자에는 내저면이 넓고 구부가 외반된 발이나 각종 햇무리굽완, 전접시, 화형접시 등 전기의 標識的인 기종이 없다. 대신에 구부가 직립한 발이나 대접, 내저 중앙에 아주 작은 원각이 있고 구부가 외반된 완, 절요접시, 평저원형접시, 소형전접시, 반구형잔, 원통형잔 등의 새로운 기종이 생겼다.¹¹⁾ 이들 새로운 기종 중에서 내저 중앙에 아주 작은 원각이 있고 구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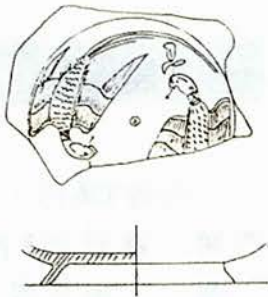
8) 국립해양유물전시관·전라북도, 『群山 飛雁島 海底遺蹟』 (2004) ; 國立海洋遺物展示館, 『群山十二東波島』 (2005) ; 강진청자박물관, 『고려시대 분묘출토 청자유물 특별전』 (2007).

9) 梅原郁, 『宋瓷-その背景と精神』, 『宋磁』 (朝日新聞社, 1999), pp.7~15.

10) 任眞娥, 『高麗靑磁에 보이는 北宋·遼代 磁器의 影響』 (弘益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5), pp.~48.

11) 國立中央博物館, 앞의 보고서(1996·1997) 9호와 10-I 층 및 10-II 층 출토 유물의 차이 참조.

외반된 완이나 소형전접시 등은 耀州窯 청자의 영향으로 생겼다고 볼 수 있다.¹²⁾ 또 문양의 소재나 시문 기법에서는 越州窯 계통의 음각 鸚鵡文(도 1·도 1-1)이나 雙蝶文(도 2·도 2-1), 요주요 계통의 인화 보상화당초문(도 3·도 3-1) 등 인화기법이 많이 사용된다. 더하여 음각 연화절지문(도 4·도 4-1·도 4-2)이나 고려시대 도자의 독특한 시문기법인 상감기법 등이 사용되는 등 前期에 음각 菊唐草文 정도가 시문되던 것에 비해 훨씬 다양해진다.¹³⁾



도 1. 청자의 음각앵무문. 율주요.



도 1-1. 청자음각앵무문대접. 사당리 출토.



도 2. 청자의 음각쌍접문. 율주요.



도 2-1. 청자음각쌍접문접시. 사당리 출토.

12) 전승창, 「靑磁 彫刻裝飾 香爐 考察」, 『고려청자와 종교』 (康津靑磁資料博物館, 2002), p. 89, 도 15-1·2, 16, 17, 18 참조.

13) 禡振西, 「耀州窯와 高麗靑瓷의 관계에 대해서」, 『美術史論壇』 7(韓國美術研究所, 1998), pp.31~44. ; 任眞娥, 앞의 논문(2005), pp.75~111. ; 상감기법을 중국 북방 자기의 기술 유입 가능성을 논한 글도 있다.(秦大樹, 「宋·金代 북방지역 瓷器의 象嵌工藝와 高麗 象嵌靑瓷의 관계」, 『美術史論壇』 7(韓國美術研究所, 1998), pp.45~76.)



도 3. 청자인화보상화당초문완. 요주요.



도 3-1. 청자인화보상화당초문완. 사당리 출토.



도 4. 청자음각연화절지문접시. 요주요.



도 4-1. 백자음각연화절지문발. 정요.



도 4-2. 청자음각연화절지문발. 사당리 출토.

특히, 인화보상화당초문을 예로 들면서 耀州窯 인화기법의 고려 유입 시기를 11세기 후반으로 추정하고, 아울러 용운리 10-II 층의 퇴적은 11세기 후반~12세기 전반에 걸쳐 생겼

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¹⁴⁾ 그러나 전술한 기종이나 문양들이 중국의 대표적인 가마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음각 연화절지문의 경우와 같이 요주요 청자와 정요 백자에 유사한 문양이 시문되는 등 중국의 각 가마들 사이에도 기종·기형·문양의 공유현상이 있었음에 유의해야 하겠다.¹⁵⁾

Ⅲ. 中期 청자의 樣相과 가마 運營

1. 中期 청자의 樣相

중기 청자의 중심을 이루는 그룹 중의 하나인 ‘成’字銘 靑磁群과 여타의 중기 가마에서 생산된 청자들 중 ‘成’字銘은 없지만, ‘成’字銘 靑磁群에 넣을 수 있는 청자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前期와는 달라진 中期 청자의 일반적인 기종·기형·문양의 특징을 확인해보겠다. 또 ‘成’字銘 靑磁群의 생산 시기를 추정하기 위해, 상대편년이 가능한 유적에서 출토된 ‘成’字銘 靑磁群에 넣을 수 있는 청자들을 살펴보겠다.

‘御件’銘이 있는 양질의 청자를 생산했기 때문에 강진의 중심 가마 중 하나로 여겨지는 사당리 7호에서는 굽 안 바닥에 鐵泥나 白泥로 ‘成’字를 쓴 반구형잔(도 5)、음각앵무문발(도 6)、음각연화절지문발(도 7)、양각연판문발(도 8)、양각연판문통형잔(도 9)、인화모란절지문발(도 10)、인화모란절지문절요접시(도 11)、인화화문화형전접시(도 12)、인화팔메트문화형평저접시(도 13)、상감국화문접시 등 ‘成’字銘 靑磁群이라 부를 수 있는 청자들이 수습되었다.¹⁶⁾ ‘成’字를 쓴 이유나 그 의미는 알 수 없지만, ‘成’字를 썼다는 사실과 사당리 7호라고 하는 한 지역에서 같이 수습되었다는 사실로 보아 거의 같은 시기에 생산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여타의 중기 가마에서 생산된 청자들 중에는 반구형잔(도 5-1、2、3)、음각앵무문발(도 6-1、2)、음각연화절지문접시(도 7-1)、양각연판문발(도 8-1)、양각연판문통형잔(도 9-1、2、3)、인화모란절지문발(도 10-1、2、3)、인화모란절지문절요접시(도 11-1、2、3)、인화화문화형전접시(도 12-1)、인화팔메트문화형평저접시(도 13-1) 들을 ‘成’字銘 靑磁群에 넣을 수 있다.¹⁷⁾

14) 전승창, 앞의 논문(2002), pp.77~91.

15) 長谷部樂爾, 「宋磁序說」, 『宋磁』(朝日新聞社, 1999), pp.24~29.

16) 상감국화문접시는 野守健, 앞의 책(1944), p.108 도판 참조.



도 5. 청자반구형 ‘成’ 字銘잔. 사당리 출토.



도 5의 굽.



도 5-1. 청자반구형잔. 유천리 출토.



도 5-2. 청자반구형잔. 구완동 출토.



도 5-3. 청자반구형잔. 생리 출토.

17) 도 7-1은 백자접시지만 연화절지문이 청자음각연화절지문 ‘成’ 字銘鉢의 문양과 유사하다.



도 6. 청자음각앵무문 ‘成’ 字銘대접. 사당리 출토.



도 6의 굽.



도 6-1. 청자음각앵무문대접. 유천리 출토.



도 6-2. 청자음각앵무문대접. 구완동 출토.



도 7. 청자음각연화절지문 ‘成’ 字銘발. 사당리 출토.



도 7의 굽.



도 7-1. 백자음각연화절지문발. 유천리 출토.



도 8. 청자양각연판문 '成' 字銘발
사당리 출토.



도 8의 굽.



도 8-1. 청자양각연판문발. 유천리 출토.



도 8-1의 굽.



도 9. 청자양각연판문원통형 ‘成’ 字銘잔. 사당리 출토.



도 9의 굽.



도 9-1. 청자양각연판문통형잔. 유천리 출토.



도 9-2. 청자양각연판문통형잔. 구완동 출토.



도 9-3. 청자양각연판문통형잔. 생리 출토.



도 10. 청자인화모란절지문 ‘成’ 字銘발. 사당리 출토.



도 10의 굽.



도 10-1. 청자인화모란절지문발. 유천리 출토.



도 10-2. 청자인화모란절지문발. 구완동 출토.



도 10-3. 청자인화모란절지문발. 생리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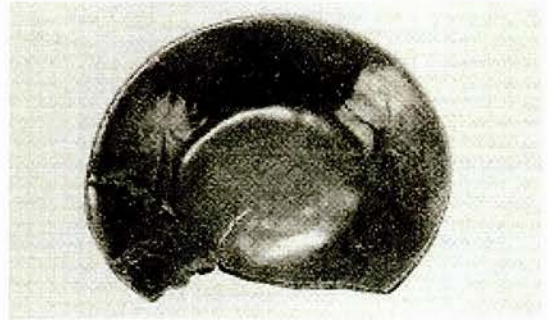
도 11. 청자인화모란절지문 '成'字銘절요접시. 사당리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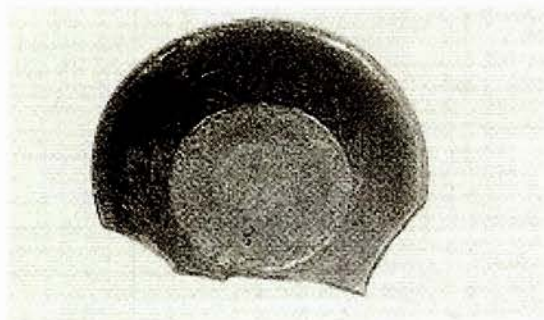
도 11의 굽.



도 11-1. 청자인화모란절지문절요접시. 유천리 출토.



도 11-2. 청자인화모란절지문절요접시. 구완동 출토.



도 11-3. 청자인화모란절지문절요접시. 생리 출토.



도 12. 청자인화화문화형 ‘成’字銘전접시. 사당리 출토.



도 12의 굽.



도 12-1. 청자인화화문화형전접시. 유천리 출토



도 13. 청자인화팔메트문화형평저접시. 사당리 출토.



도 13의 굽.



도 13-1. 청자인화팔메트문화형평저접시. 유천리 출토.

‘成’字銘 청자들과 여타 중기 가마 생산품과의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규석을 받쳐 구운 최상품을 제외하면, 생산품들은 기종이나 기형, 문양의 소재나 시문기법 등이 서로 유사하다. 이러한 현상은 模本이 있어 그것을 충실히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기 청자를 생산했던 가마들은 강진지역의 용운리·계율리·사당리의 100여 곳과 부안지역의 유천리·진서리의 70여 곳, 그 외에 공주 신영리·대전 구완동·음성 생리·용인 보정리 등 여러 지역에서 소규모 가마들이 확인된다.¹⁸⁾

기존에 도자기를 생산하지 않았던 지역에서 새롭게 도자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태토를 찾고, 가마를 만들고, 환원번조를 해야 하는 등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새로운 지역에서 도자기가 생산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장인이 새로운 지역에 移住해서 자기를 만들었거나, 아니면 적어도 장인에 의한 직접적인 기술의 전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사회적인 이유나 지리적인 거리에 따라 시기의 차이는 있었겠지만,睿宗 3년(1108)의 기록으로 보아,¹⁹⁾ 강진 大口所나 七陽所[七良所] 등 瓷器所로부터의 流亡 匠人에 의한 製磁技術 확산이 있었던 시기에 부안지역을 포함한 여러 지역의 중기 가마들이 開窯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²⁰⁾

특히, 부안 유천리의 경우는 강진에서 사용하던 陶范을 共用하였거나 강진 장인의 직접 지도가 있었다고 여겨진다. 특별한 제작 기술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청자철채인화문완(도 14·15)이나 청자銅彩盞 등이 사당리와 유천리에서 똑같이 생산된 사실은 사당리와 유천리의 긴밀한 관계 및 장인의 직접 교류를 증명하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18) 海剛陶磁美術館·康津郡, 『康津의 靑磁窯址』, 康津靑磁窯址 地表調査報告 I, 1992;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扶安郡, 『扶安 柳川·鎭西里 靑瓷窯址 調査報告書』, 1994; 圓光大學校博物館·全羅北道 扶安郡, 『扶安 柳川里 7區域 靑瓷窯址群 發掘調査報告書』, 2001; 『世界陶磁全集』18, 高麗(小學館, 1978), p.224 도판 참조; 海剛陶磁美術館·大田廣域市, 『大田 舊完洞 窯址』(2001); 忠北大學校博物館, 『陰城 筮里 청자가마터』(2002); 畿甸文化財研究員, 『龍仁 寶亭里 靑磁窯址』(2006).

19) 『高麗史』卷 72, 食貨 1, 貢賦 睿宗 3年 2月, “銅·鐵·瓷器·紙·墨 雜所, 別貢物色, 徵求過極, 匠人艱苦, 而逃避, 仰所司, 以其各所別常貢物, 多少酌定, 奏裁.” 정확하게 강진 대구소나 칠량소를 지적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12세기 초에 다른 소들과 같이 자기소들도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 강진 지역의 자기소도 그러한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20) 崔健, 앞의 논문(1998), pp.11~19. 위 논문에서 부안 유천리는 5期中 2期인 세련기에 속하며, 6차 波及期中 4차 波及期(11세기 후기)에 속한다. 張南原, 「‘康津유형’의 공유 현상을 통해 본 11~12세기 청자의 성격」, 『美術史學研究』231(韓國美術史學會, 2001), pp.77~100.



도 14. 청자철채인화문완. 유천리 출토.



도 14 뒷면.



도 15. 청자철채인화문완. 당전리 1호 출토.



도 15 뒷면.

이러한 ‘成’字銘 청자군의 생산 시기를 추정하기 위해, 상대편년이 가능한 유적에서 출토된 청자들 중 ‘成’字銘 靑磁群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겠다.

1. 惠陰院址(12세기 전반~13세기 전반)

惠陰院址는睿宗 17년(1122) 완공되고, 仁宗 22년(1144)경에는 인종과 왕비 임씨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았다. 行宮이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12세기 전반부터 양질의 청자가 반입되었을 수 있으며, 몽고의 침입에 의한 혼란으로 13세기 전반에 폐지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다.²¹⁾ 혜음원지에서는 ‘成’字銘 청자군에 넣을 수 있는 인화팔메트문화형평저접시(도 16)와 인화화문화형전접시(도 17)가 출토되었다.

21) 姜京男, 『坡州 惠陰院址 出土 高麗靑瓷 研究』(檀國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3).



도 16. 청자인화팔메트문화
형평저접시. 해음원
지 출토.



도 17. 청자인화화문화형전접시. 해음원지 출토.

또한 해음원지에서는 강진이나 부안 생산품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청자완(도 18)들도 출토되었다. 가마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해음원지 주변의 중기 가마에서 생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²²⁾



도 18. 청자완. 해음원지 출토.

2. 智陵(1202년 이전)

明宗 智陵은 神宗 5년(1202)에 축조되었다. 부장품은 당시의 가장 수준 높은 것이고 특별

22) 지방 수요에 응하여 운영되었던 소규모 가마의 생산품이 실제로 주변의 寺址나 建物址에서 발견된 바 있다. (海剛陶磁美術館·大田廣域市, 『大田 舊完洞 窯址』, 2001, pp.77~78)

한 정치·사회적 변화가 없었던 시기였으므로, 제작 시기는 부장 시기와 근접한 13세기 초로 인정된다.²³⁾ 지릉에서도 ‘成’字銘 청자군에 넣을 수 있는 인화팔메트문화형평저접시(도 19)와 전술한 ‘成’字銘 청자들과 함께 사당리 7호에서 수습된 청자원형 ‘成’字銘평저접시(도 20)와 유사한 청자원형평저접시(도 20-1)가 출토되었다.



도 19. 청자인화팔메트문평저접시.
지릉 출토.



도 19의 굽.



도 20. 청자 평저원형 ‘成’字銘평저
접시. 사당리 출토.



도 20의 굽.



도 20-1. 청자원형평저접시. 지릉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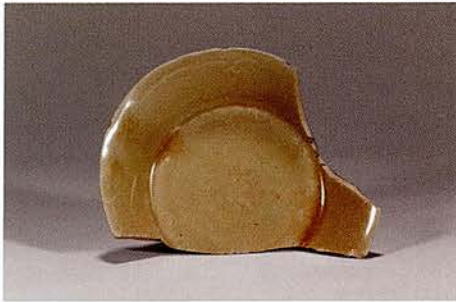


도 20-1의 굽.

23) 고종 42년(1255)에 修築된 기록에 근거해 부장품을 修築된 시기로 편년하는 제안도 있다(韓盛旭, 『高麗後期 靑瓷의 性格』, 木浦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1, p.19).

3. 碩陵(1237년 이전)

熙宗 碩陵은 高宗 24년(1237)에 축조되었다. 석실 내부에서는 ‘成’字銘 청자군에 넣을 수 있는 청자 양각연판문발·인화팔메트문화형평저접시(도 21)·인화화문화형전접시(도 22) 등이 출토되었다.²⁴⁾



도 21. 청자인화팔메트문평저접시.
석릉 출토.



도 22. 청자인화화문화형전접시.
석릉 출토.
(외측면에 백상감화문 있음)

4. 坤陵(1239년 이전)

康宗의 妃인 원덕태후의 무덤인 坤陵(1239년 축조)에서는 청자 음각운문삼족향로·음각연화문매병뚜껑과 함께 ‘成’字銘 청자군에 넣을 수 있는 인화화문화형전접시(도 23) 등이 출토되었다.



도 23. 곤릉 출토 일괄 유물.

24) 國立文化財研究所, 『江華碩陵』(2003),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우선 생산지의 상대편년으로 보면, ‘成’字銘 청자군에 넣을 수 있는 기종이나 기형, 문양을 가진 청자들이 製磁技術의 확산기에 유천리를 포함한 여러 지역의 중기 가마에서 공통적으로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 상한은 12세기를 전후한 시기로 여겨진다.²⁵⁾

하지만 소비지의 상대편년으로 보면, ‘成’字銘이 있는 청자군에 넣을 수 있는 기종 중의 일부가 파주 해음원지나 지릉·석릉·곤릉에서 출토되는 것으로 미루어 ‘成’字銘 청자군의 청자들이 13세기 전반까지도 그 생산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中期 가마의 運營

그러면 중기 가마는 어떻게 운영되었을까? 물론 강진 지역은 瓷器所가 있었으므로 그 所에 속한 장인들이 운영하였을 것이다.²⁶⁾ 하지만 부안을 비롯한 여타의 중기 가마들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여기서 고려시대 수공업제품을 생산했던 소의 일반적인 운영형태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려시대의 특수행정구역이었던 鄉·所·部曲 가운데 所는 특정 공물의 생산·공납과 관련하여 편제된 것이었으며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은 금·은·동·철이나 자기·종이와 먹, 실과 옷감을 생산하는 手工業所였다.

소는 특수행정구역이라는 점에서 촌락의 규모나 주민 구성 등은 향·부곡과 비슷하지만, 반드시 특정 공물을 생산·납부하였다는 점에서 향·부곡이나 일반 군현 지역과 구별된다. 이들 수공업소의 제품들은 대개 매우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며, 사회적으로도 중요성을 지니는 것들이었다. 따라서 고려시대 수공업에서 차지하는 소의 비중은 매우 크

25) ‘成’字銘 청자군이 용운리 10-Ⅱ층과 유천리에서 모두 생산되기는 하였지만 생산량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거기에 질이나 문양시문의 세련됨과 번조방법 등을 고려하면, 시기적으로 큰 차이는 없겠지만 세분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즉, 강진 용운리 10-Ⅱ층의 중심시기부터 활발하게 생산된 반구형잔·음각앵무문발·음각연화절지문발·양각연판문발·양각연판문통형잔들은 조금 이른 시기로, 유천리 청자의 중심 시기(강진 용운리 10-Ⅱ층의 늦은 시기)에 활발하게 생산된 인화모란절지문발·인화모란절지문절요접시·인화화문화형전접시·인화화문화형접시·상감국화문접시들은 조금 늦은 시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成’字銘 靑磁들이 별다른 시기차이 없이 생산되었다고 보면 그 생산의 상한을 개요 시기 보다는 조금 늦게, 즉, 유천리에서 본격적인 양질 청자를 생산했던 12세기 전반 경으로 편년할 수 있겠다.

博多出土 청자를 연구하여, 10-Ⅱ층 各類를 12세기 전반으로 編年한 論考도 있다(森本 朝子·片山 まび, 「博多出土の高麗·朝鮮陶磁の分類試案」, 『博多研究會誌』 第 8号, 博多研究會, 2000, pp.41~75).

26) 康津縣 古蹟條에 大口所와 七陽所(七良所) 내용이 있다(『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 V, 제 37권, 민족문화추진회, 1970, p.81).

다.²⁷⁾

소는 공물의 부과 단위이기는 하지만, 소에서 생산된 공물은 소가 속해 있는 군현의 공물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근래의 일반적인 학설이다.²⁸⁾ 또한 소에 부과되는 수공업 공물들은 소뿐이 아니라, 향·부곡이나 일반 군현에서도 생산되었다. 소로 편제되는 것은 특정 공물의 생산에 적합한 자연적 조건을 갖춘 곳일 뿐만 아니라, 羅末麗初 지방 사회 내에서 종속적인 위치에 있었거나 反高麗的인 입장을 취하였던 人爲的 조건을 가지는 공동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수공업 공물의 생산에 유리한 自然的 조건을 갖춘 지역이면서도 인위적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지역은 일반 군현에 편제되었을 것이다.²⁹⁾

窯業이 소에 편제된 시기는 지방제도가 정비되는 태조 23년(940)경부터 늦어도 성종 6년(987) 8월 군현제가 완성되는 즈음으로 여겨지나 확실한 시기는 아직 밝혀진 바 없다.³⁰⁾ 하지만 睿宗 3년(1108)에 이미 所의 폐단이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보아 顯宗년간(1009~1031)에는 대체로 편제가 완료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강진을 제외한 중기 청자를 생산했던 지역들은, 고려의 지방제도가 정비 중일 10세기 후반까지는 인위적 조건은 且置하고라도 청자를 생산하는 자연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군현에 편제되었을 것이다. 그 후 12세기를 전후한 때에 製磁技術이 도입되어 요업이 시작된 곳이다. 즉, 所가 확정된 이후에 새롭게 수공업 공물 산지가 된 것이다.

지방편제가 확정된 후에 새롭게 수공업 공물 산지로 개발된 곳들을 소 등 특수행정구역으로 추가 편제할 경우, 기존 군·현민의 신분에서 낮아져 각종 법적 차별이 생겨남으로 특수행정구역에 편제되는 것에 대한 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 등의 특수행정구역으로 편제하지 않았다.³¹⁾ 결국 강진을 제외한 중기가마들은 여타의 所가 성립된 이후에 도자기를 생산하게 되었으며, 군이 소로 편제할 실익이 없었기에 일반 군현에 편제된 상태로 所였던 강진과 같은 체제로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³²⁾ 따라서 『高麗史』나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27) 서성호, 「高麗 수공업소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검토」, 『한국사론』 41·42(서울대학교人文大學 國史學科, 1999), p.242.

28) 박종진, 『고려시기 제정운영과 조세제도』(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p.116.

29) 서성호, 위의 논문(1999), pp.265~274.

30) 『高麗史』卷 56, 地理 1, 序文. “…至23年, 始改諸州府郡縣名, 成宗, 又改州府郡縣, 及關驛江浦之號, …” (徐明禧, 「高麗時代 鐵所」에 대한 연구, 『韓國史研究』, 韓國史研究會, 1990, pp.1~34에서 재인용).

31) 所가 후에 승급한 경우는 있어도 새로 설치된 경우는 없다(김한규, 『한중관계사 I』, 대우학술총서 논저 422, 아르케, 1999, p.431).

에 관련 기록이 없다고 여겨진다.

또 ‘成’字銘이 있는 청자군에 넣을 수 있는 청자들은, 생산지인 가마터나 소비지인 유적에서의 출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감기법의 도입이라는 생산 기술상의 커다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종과 기형에 큰 변화 없이 거의 150여 년 동안 꾸준히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가마를 운영했던 장인 집단에 대해 살펴보겠다. 1976년 강진군과 大口골짜기[한골]의 인구를 비교하여, 麗末鮮初에 강진에서 10戶 46名이 요업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 논문이 있다.³²⁾ 또 비교 국가와 시기 및 생산여건은 모두 다르지만, 고려시대 강진의 大口所와 元의 浮梁瓷局을 人口 對比 匠人 數로 단순 비교해 보겠다. 康津縣은 麗末鮮初에 戶 : 355, 口 : 1,644名이었던 것에 비해, 浮梁縣은 1269년에 戶 : 38,832, 口 : 137,053名이었다. 즉, 어림 수치이지만, 강진현 : 부량현의 인구비율은 1:83이 된다. 그런데 1278년 세워진 浮梁瓷局의 磁器匠人은 160名 정도였다.³⁴⁾ 따라서 ‘成’字銘 靑磁群을 생산할 때인 12~13세기에 고려 전체 인구수가 210만 내외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강진의 大口所에 속했던 匠人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강진의 용운리·계울리·사당리 등 넓은 지역에 散在한 100곳이 넘는 가마와 부안의 유천리와 진서리 등에서 확인된 70여 곳의 가마들은, 생산된 청자의 양식은 유사하지만, 동시에 운영되었다고 보기 보다는 소수의 장인 집단에 의해 꾸준히 운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이러한 추정은 시대는 다르지만 조선시대 官窯가 대략 10년 정도의 移設 주기를 가졌고, 한 지역에서 동시에 8.4곳의 가마가 운영되었으며, 왕실용 양질백자를 만들던 1~2개와 관청용 조질백자를 제작하던 여러 개로 구성되었다고 보는 견해와도 상통한다 하겠다.³⁵⁾ 물론 조선시대에는 380명의 장인이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기 때문에,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인구수와 장인수의 비례를 감안하면, 고려 시대 중기 가마들의 운영 여건은 조선시대의 관요에 비해 인력면에서 더 열악했을 것이다. 여타의 공주 신영리·대전 구완동·음성 생리·용인 보정리 등 소규모의 중기 가마들은 가마가 위치한 주변 지역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적은 수의 장인에 의해 단기간 운영되었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산품의 상대편년 폭이 크기 때문에 정확한 운영 시기는 파악하기 어렵다.

중기 청자 가마들 중 강진이나 부안 유천리 가마들을 제외한 여타의 중기 가마들에서는

32) 具一會, 앞의 논문(2007), pp.93~96.

33) 權丙卓, 「高麗後記 陶磁器所の 經營形態」, 『大丘史學』 15·16 (大丘史學會, 1978), pp.158~159

34) 劉新園, 「元代窯事小考(一)」, 『陶說』 351 (東京:日本陶磁協會, 1982), pp.22~28

35) 전승창, 「15~16세기 조선 관요운영과 백자의 변천」, 『제51회 전국역사학대회 논문집』, 2008, pp.503~504.

간지명 형식의 청자나 그 이후로 편년되는 정릉명 청자군, 또 원의 영향으로 생겨난 기종이나 문양 등이 시문된 청자들은 생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후기 청자를 생산하지 못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廢窯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원인은 몽고의 침입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즉, 몽고의 침입에 의한 약탈도 있었겠지만, 그 보다는 몽고에 대항하기 위한 고려의 基本的인 抗戰策이었던 海島와 山城等地에의 入保에 의한 淸野策의 결과에 의해 강진과 부안의 중심 가마들을 제외한 소규모의 중기 가마들은 거의 동시에 廢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³⁶⁾

V. 結 論

고려는 北宋과의 활발한 교류에 의해 도자기를 일상용기로 사용하는 북송 문화를 받아들였으며, 그 영향으로 고려에서도 도자기의 사용이 급증하였다. 이는 전기에 비해 사찰이나 분묘 등 고려시대의 여러 유적에서 중국도자기와 고려청자의 출토량이 증가한 것은 물론, 그 器種의 대부분이 일상용기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수입된 중국 도자기와 강진에서 생산된 청자만으로는 고려사회 전체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였기에, 그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부안 등 중기 가마들의 요업이 촉발되었다고 여겨진다. 이는 북송에서 자기의 실용화에 따른 수요층의 확산에 의해 북방 자기 가마들이 활성화 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특히, 12세기 초에 관장제 수공업이 붕괴되어 사적인 가마운영이 가능해진 것도 중기 청자 생산 가마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큰 요인 중의 하나라 하겠다. 또 중국 도자기의 유입 과정에서 당연히 고려청자의 기종이나 기형, 문양 등에 북송이나 遼, 金 도자기의 영향이 있었다. 즉, 중기 청자에는 前期에는 없었던 구부가 직립한 발이나 대접, 내저 중앙에 아주 작은 원각이 있고 구부가 외반된 완, 절요접시, 평저원형접시, 소형전접시, 반구형잔, 원통형잔 등의 새로운 기종이 생겼다. 또 문양의 소재나 시문 기법에서 음각 鸚鵡文이나 雙蝶文, 인화 보상화당초문 등 인화문과 함께 음각(片切彫) 연화절지문이나 상감기법 등이 사용되는 등 전기에 비해 훨씬 다양해졌음을 알았다.

중기 청자의 중심을 이루는 그룹 중의 하나인 ‘成’字銘 靑磁群과 여타 중기 가마의 생산품과의 비교를 통해서 생산품들이 서로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강진 등

36) 尹龍燦, 『高麗對蒙抗爭史研究』 (一志社, 1991), pp.183~190 ; 具一會, 앞의 글(2007), pp.86~91.

瓷器所로부터의 製磁技術의 확산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으며, 그 생산 시기의 상한은,睿宗 3년(1108)의 기록으로 보아, 12세기 전후한 시기로 보았다.

또 ‘成’字銘 靑磁群과 상대편년이 가능한 유적에서 출토된 청자들 중 ‘成’字銘 靑磁群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成’字銘이 있는 청자군에 넣을 수 있는 기종 중의 일부가 파주 혜음원지나 지릉·석릉·곤릉에서 출토된 것이 확인되어 ‘成’字銘 靑磁群이 13세기 전반까지도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강진지역에서 100여 곳 부안지역에서 70여 곳이 넘게 확인된 중기 가마들은, 원의 부량자국이나 조선시대 官窯 운영의 예로 보아, 소수의 장인 집단에 의해 150여년간 꾸준히 운영된 결과라고 보았다. 여타의 공주 신영리·대전 구완동·음성 생리·용인 보정리 등 소규모의 중기 가마들은 가마가 위치한 주변 지역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단기간 운영되었다고 여겨진다.

강진을 제외한 중기 가마들은 여타의 수공업 所가 성립된 12세기 이후에 도자기를 생산하게 되었으며, 군이 소로 편제할 실익이 없었기에, 일반 군현에 편제된 상태로 요업을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중기 가마들은 『高麗史』나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관련 기록은 없으나 所였던 강진과 같은 체제로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강진이나 부안 유천리 가마들을 제외한 중기 청자 가마들은 생산품으로 보아 후기까지 운영되지 못하고 거의 동시에 廢窯되었으며, 그 원인은 몽고에 대항하기 위한 고려의 基本的인 淸野策의 결과라고 보았다.



강진청자박물관